EAST ASIAN 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TORONTO, CANADA M5S 1A5

JUN 30 1981

The Korea Times Toronto

— 1 —

(일간) No. 548 1981년6월24일(수)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 Wednesday, June 24. 1981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토론토인쇄인 : 김 형 근

The Korea Times of Toronto (or Hankookilbo)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 Holidays. Supscription fee $90. per year, $8.00 per Month.
ISSN 0319 2962
구독료 : 연$90, 월$8.00
SECOND CLASS MAIL
NP9184

■6·25 특별연재■ ①

캐나다군의 참전; 그들은 왜 무엇을 했나?

용맹과 군기는전사에 남아

토론토에서 발간되는 잡지 「퀘스트」는 5월호에서 한국전에 참전한 캐나다군의 활약상을 게재했다.

이 기사는 프리랜서·라이터(특정회사에 소속되지않은 작가)알렉산더·브라운씨가 쓴 기사이다. 이번기사는 캐나다군의 한국참전에 관해 드물게 보는 기사이다. 브라운씨는 캐나다군의 활약상에 관해 책을 저술, 내년 가을께 출판할 예정이다.

본(한국일보—토론토)는 6·25 31주년을 맞아 이를 수차례에 나눠 게재한다.

한국인들을 빼고는 전세계가 한국동란 (6·25사변)의 심각성을 거의 잊어버린것 같다.

TV연속 코메디물「매슈」(MASH)는 동란의 비극이나 참상을보여주기도 하지만 연중내내 우스개소리만 한다. 어떤점에서 보면이 전쟁은 불필요한 피흘림이었다. 전쟁중 150만이 넘는 병사들이 죽었고 수십만의 시민이 실종됐다. 동란은 끝났지만 남북은 전쟁전과 같은 경계선에서대치하고 있다.

캐나다는 31년전 참전, 용감하게 싸웠고 많은 영웅들을 배출했다.

유엔군의 일원으로 참전했을때 캐나다 병사들은가장잘 훈련되고 가장 잘 싸우는 군인들이었다. 우리는 항상 신화가 뒤따르는 용감한 전투원들이었다. 캐나디안들은 목적달성에 실패가 없고 진지를 잃어버린적도 없는 병사들이라고 불리워 졌다. 그러나우리 병사들은 마지막 한사람까지 싸우는 바보도 아니였고 방어하기 힘든 진지를 버리는데 주저하지도 않았다. 종종 우리 진지는 쑥밭이 되어 우리는 겁쟁이라는 평판을 듣기도했다.

1950년 6월25일 3·8선을넘은 북한군이 한국군을 압도하자 서방세계는 놀라움에 가득찼다. 외무장관레스터·피어슨의비서 매리·맥도날드는 라디오에서 전쟁뉴스를 듣고 보트를저어 가티노·힐의가브르호수중간에 가있던 에스코트·리드차관에게 소식을 전하고 또 16마일이나 운전, 전화가없는 농장에 있던피어슨장관에게 달려가야 했다.

며칠후 잘 무장된 북한군이 남한을 마구 점령하는 동안 다그라스·맥아더대장은 유엔군 사령관이되어미해군과 공군을 한국으로보냈다. 이때까지 남한은 이미 수도서울을 잃고 '반도끝까지 밀리고 있었다. 미제24, 25, 7보병사단의주축과함께「지옥의 악마」라고 불리우는 미제1캐발리사단이 속속 한국으로 향했다. 맥아더의 첫 실수는 식량공급 이었다.

미군은 훈련도 안되고장비도 빈약하며 군기도 철저하지 못하면서 남한군과 같이 전투에 참가하였다. 미 전투기들이 제공권을가져 북한탱크를 부수었지만 지상전에서는 계속 밀렸다.

유엔군은 패하고 쫓겨서 한반도끝 부산근교 좁은지역으로 후퇴했다. 약 20만의 북한군은 15개사단과고성능 소련제 T34탱크로무장된 1개가강 여단으로구성되었다. 북한탱크는 미군을포함, 16만의 남한군을 공격하고 포격해서 탈진상태로 만들었다. 바로이시점에서 항상 강경론자이던 맥아더는 우회공격을 감행했다. 그는 근세어느 장군들보다 훌륭한 작전을 만들었다. 맥아더는 미본토 유럽, 아시아등지에 산재해있던 미제1 해병대에서 병력을 차출하고 미제7보병사단과 한국해병대로 상륙단을 만들었다. 이들은 북한군 후방인 인천항에상륙, 서울을 탈환하고 부산의 포위망을 벗어난 미8군과 연결하여 후퇴하는 북한군 후방을 처부수었다.

바로 이 승리에 만끽한 맥아더는 그의 군 경력에 오점을 남기는 작전을 지시했다. 북한군을 서울에 몰아놓고 서울을돌아 북진하는 대신 그들을계속 철저히 공격하라고 했다. 이것은 양측에 수많은 희생자를 초래했다.

제1캐발리사단은 38선을넘어 북진했고 인천상륙작전을 감행한 제10군단은 인천상륙작전의 재판인 원산상륙작전을 수행했다.

유엔군은 북한수도인 평양을지나 중국국경으로 향했다. 바로이때 전쟁의분기점을 이룬 중공군의 대반격이 시작됐다. 위협을 느낀 중공군은 압록강을넘어 남진, 유엔군을 패퇴시켰다. 8사단과 한국군은 전열이 흐트러졌고 특히 10군단은 심한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미 해병대는 엄격한 군기와 용맹의 명성을 되살려 고전적후퇴작전을 폈다.

서울은 다시 북측에의해 점령되고 유엔군은 간신히 방어선을 대전근교에 펼수 있었다. 트루만대통령에게 대들은 맥아더사령관은 매튜·리지웨이중장으로 대치되었다.

다시 북진하는 사병들속에는 캐나다 제2 패트리셔공주 경보병 전투부대가 있었다. 바로 이들이 전설의 패트리셔가 되었다. 또다른 캐나다 육군이 51년 늦봄 전투에 투입됐다. 이때는 중,북한 연합군이 다시 대공세를 펼치고있었다. 전선은 일진일퇴의 공방을 벌이면서 휴전회담이 시작됐다. (계속)

◇사진은 가평전투격전후 지친 패트리샤부대 전투병들.

중공, 화국봉 사임
모시대의 폐막

(북경)화국봉 중공당주석이 사임함으로써 모택동시대의 막이내려, 한때 중국의 최대영웅이었던 모택동에대한 재평가와 아울러 등소평 부주석을 서두로한 수정주의 온건파들이 세력을 펴기 시작했다.

◇화국봉

모택동의 지명후계자 화국봉은 지난주 개막된 중공당중앙위에서 자신이 중대한 과오를 저질렀음을시인 사임했고, 215명의 당중앙위 위원들은 절대다수로 이를 수리했다고 소식통들이 밝혔다.

76년이후 주석직에 있어온 화국봉의 후계자로는등소평 부주석의 오른팔격인 호요방 당총서기가 될것으로 보이며, 모택동 지지자들에 대한 일대숙청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중공최고 정책기구인 당중앙위 회의는 금주말경끝날 것이다.

모택동의 업적을 재평가 모를 위대한 혁명가로서추앙은 계속하나, 그의 정책은 수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경제 협력회담
한국상품 억제 완화 촉구

(서울24일연합=본사특약) 24일 한미 경제협력회담의 한국측 대표인 노신영외무부 장관은 한국의 섬유류, 신발류에대한 미국의 수입억제를 풀어줄것을 요구했다.

23, 24일 이틀간 서울에서 개최된 한미경제협력회담에서 한국측은 또한 전반적인 한국상품의 관세완화및 수입제한의 대상이되지않는 상품들의 목록도알려주기를 요청했다.

마이어·래쉬쉬 미국무성 경제담당 차관보를 대표로한 미국측은 한국의요구조건들을 외교채널을 통해 재검토하기로 약속했다.

이밖에 한미무역 증진, 군수물자 차관 증액, 핵연료 공급문제등이 논의됐다.

구독신청은 (416) 533-2361

희망의마라토너 테리·팍스
병세악화, 재입원

(뉴·웨스트민스터)희망의 마라톤의 주인공 테리·팍스(22)가갑자기 악화된 증세로 지난 19일 로얄·콜럼비아병원에 재입원 했으며, 그의암 증세는 점차악화되고 있다.

팍스군의 주치의 헤펠핑거 박사는 22일 하루동안 그는 의식을 잃었다가 강한 투지로 다시 의식을 찾았으나 그의 증세는 지난 2월 심장에고인물을 빼기위해 응급수술을 받은이후 최악의 상태라고 말했다.

팍스군은 암으로 한쪽다리를 절단당한 뒤 캐나다전국을 마라톤으로 횡단, 암퇴치 기금을 모으는 희망의 마라톤을 전개해 2천4백만달러를 모았다.

그의 희망의 마라톤은비록 가슴에 번진 암 때문에 중단 됐으나 캐나다 전 국민에 뜨거운 용기와 투지를 불어넣어 주었고, 그의 이름은 캐나다의 영웅으로 지칭되기도 했다.

테리·팍스군.

백만시민 궐기
서울서 반공대회

서울24일연합=본사특약) 북한이 전두환대통령의 남·북한 대화제의를 거절한것과 북한의 남한비방에항의하기 위한 반공궐기대회에 백만 서울시민이 참가했다.

24일 여의도광장에서 벌어진 이 궐기대회는 6·25발발 31주년인 25일을하루앞두고 한국반공연맹이 주관한 것이다.

시민들은 평양측이 한반도 무력적화기도를 포기하고, 대화를 통한 평화통일의 광장에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토론토 쇼핑의 전당
미도파
454 BLOOR ST.W
(B) 536-1692
(R) 245-3539

생명보험

(HENRY)KANG
Canada Life
12년간근무중
교육및
생명보험
은퇴연금
R·R·S·P
세금공제
B) 868-0922
R) 622-5147

아 세 아
건 재 약 방
선 물 센 타
걱정없이 살 수 있는
청심환을
대량직수입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봉사하고저
하오니 일차
왕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北京同仁堂
牛黃清心丸
大量入荷
BIG SEVEN TRADING CO.
678 BLOOR ST. W. TOR.
(고려식품옆)
☎: 530-0522. 3
조지섭·김영철

서울행단체 매주출발
IATA 저렴한 요금의
●국내항공표일체 ●각종관광여행
●국제항공표 일체 ●각종 CREDIT카드 환영
컴퓨터 시스템으로 신속처리
신용과 경험과 책임성있는
여러분의 여행사!!
가장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한국여행사
593 BLOOR ST. W. TORONTO
(B)531-4607 (R)487-8088
성낙윤

Addison
BUICK
PONTIAC
CADDILLAC
Cadillac

원 재 훈
새차와 중고차 LEASING
전 북미주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GM의 신형모델 J2000가 에디슨에 나와 있읍니다. 각종외국 수입품보다 Engineering, Technology, Gas Mileage에서 월등하며 GM역사상 가장 센세이숀널 J2000를 시운전 해보시고 북미의 이 새로운 Feeling을 체험해 보세요.
ADDISON BAY at COLLEGE
(B) 964-3211 Howard Won

.Daily Newspaper
1025 DUPONT STREET, TORONTO
ONT. M6H 1Z7, TEL: (416) 533-2361

East Asian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일기업, 임금 떼먹고 철수

가톨릭 단체, 일수상에 탄원서

(도꾜23일연합=본사특약) 일본의 한 가톨릭계 단체는 23일 9개의 일본기업이 최근 한국인 직원들에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지불치않고 한국에서 철수해 버린데 대해 강력히 비난했다.

일본 가톨릭 정의, 평화위원회는 스즈끼·젠꼬 일본수상에 보내는 탄원서에서 일본정부는 영향력을행사, 한국인 노무자들에 밀린 임금을 지불할것을 촉구하고, 같은 내용의 서한을 일본경제기구연맹에도 보냈다.

일본가톨릭정의평화위원회는 또한 금년초 마산수출 자유지역에서 철수한한 일본무역회사가 268명의한국인 고용자들에 3개월치 임금 총 6천만엔(미화 270만달러)를 지불치 않았음이 조사결과 밝혀졌다고 말했다.

맥켄로에 벌금

최연소 리날디 출현

(런던)윔블던 테니스 대회의 남자2번「시드」존·맥켄로선수의 욕설사건은 대회 초반부터 대회운영자를 곤경에 처하게만 들었다.

대회 당국자는 맥켄로에게 1,500달러의 벌금과 앞으로 또 그런짓을 하면 출전을 금지한다는 강력한경고처분을 내렸다.

윔블던대회의 권위와 세계의 최 강자중의 하나인 맥켄로의 비중이 대회당국을 당황하게 만들고 있다.

한편 여자조에서는 전년도 챔피온 이본느·굴라공·콜리가 임신관계로 불참, 대회를 어둡게 했다. 그러나 윔블던사상 최연소인14살의 캐시·리날디의 출현은 대회분위기를 새롭게바꿔 버렸다.

캘리포니아출신의 리날디는 시드도 없이 와일드카드로 시합에 참가, 남아프리카의 강자 수잔·리 금리슨을 6-3, 2-6, 9-7로 누름으로서 관중들을놀라게 했다.

◇윔블던 사상 최연소자인 14세의 캐시·리날디양

몬트리얼한인회

교민야유회

(몬트리얼 정관성지국장) 몬트리얼한인회(회장 박종구)는 지난 14일 몬트리얼에서 약 40마일 떨어진 야마스카 공원에서 야유회를 가졌다.

100여가구의 교민들이모여 모처럼의 야유회를 즐겼으며 한인회는 줄다리기등 가족게임을 준비하여흥을 돋았고, 행운상 추첨도 있었다.

한편 한인노장회 (회장 정세봉)은 지난7일 노인야유회를 가졌다.

기념우표 발행

전대통령 동남아 순방

(서울24일연합=본사특약) 한국체신부는 전대통령의 동남아 6개국 순방을 기념하는 우표를 발행했다.

체신부는 24일 전대통령의 초상화와 6개국 국기및 태극기가 그려진 40원짜리 우표 8백만장을 비롯한 기념우표 5종의 총 2천5백만장을 발행했다고 발표했다

전대통령은 6월25일부터 7월9일까지 동남아 국가연합(아세안)6개국을 순방한다.

최덕신씨 평양착

방문목적은 불명

(서울23일=연합)한국의 외무장관을 지냈으며 천도교 교주였던 최덕신씨가22일 평양에 도착했다고 내외통신이 전했다.

미국거주 최씨는 최근한국정부를 비난해 왔다.

최씨의 평양방문은 캐나다교포인 최홍희씨의 주선에 의한 것이라고 내외통신은 평양방송을인용, 보도했다.

최홍희씨는 작년10월 국제태권도연맹회장으로 평양을 방문했었다.

최덕신씨의 평양방문 목적은 알려지지 않았다.

한편 최홍희씨는 23일 자신이 최덕신씨의 평양방문을 주선했다는 것은 낭설이며 전혀 아는 바 없다고 미시사가 자택에서 말했다.

현준극등 재입국 불허방침

일, 외상회담 8월개최 노력

(도꾜23일연합=본사특약) 소노다·스나오일본외상은 최근 일본을 방문, 입국당시 비자에 명시된 것과는 달리 불법적인 정치활동을 전개한 북한정치인들의 일본 재입국을 허용치 않을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소노다외상은 또 일본정부는 대북한정책에 관해서 울및 워싱턴정부와 긴밀한 접촉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이같은 발언은 북한현준극이 북한국회 사절자격으로 일본방문당시 정치활동을 전개치 말라는경고를 받은것에 대한 언급으로 이날 한일의원협의회의 한국측 대표인 김윤환의원과 만난 자리에서나온것이다.

일본정부는 또한 일본국내사정으로 지연된 한일외상회담을 8월중, 한일각료회담을 9월중에, 그리고금년중 양국정상회담을 갖도록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해외 유학생

문교부 지도강화

(서울24일연합=본사특약) 한국정부는 최근 유학생의 문호를 확대한데이어 해외유학생의 지도를 강화할계획이다.

문교부는 7월 실시될 유학생지도 강화책으로 각해외공관에서 그나라의 유학생들의 대외 이미지를 개선하기위한 특별 보호책을 강화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이규호 문교장관이 24일 밝혔다.

해파리 냉채 만드는법

◆재 료

해파리 ½lb. 오이1개. 소금 1스픈. 다진 마늘 1스픈. 설탕1스픈. 식초 1스픈. 물 1스픈.

◆만드는법

①해파리는 부드러운 것을 준비하여 찬물에 담가 짠물을 우려낸 다음. 끓는 물에 잠깐 담궜다가 곱게 채쳐 물기를 뺀다.

②오이는 소금으로 문질러 씻은 뒤 어슷 썰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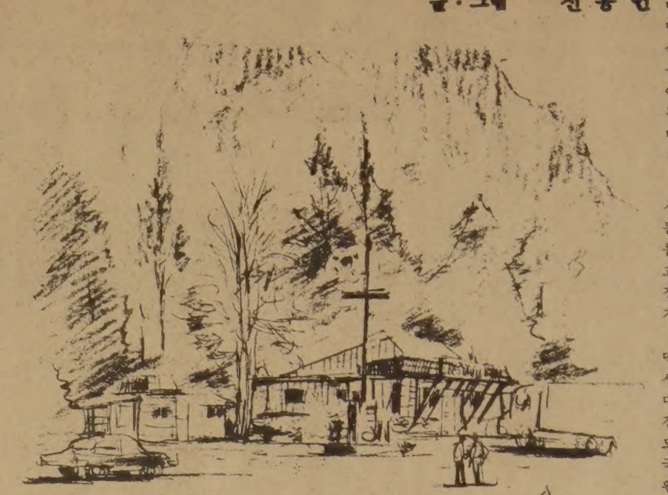
③유리 그릇에 해파리와 오이를 가지런히 담고 소금+식초+설탕+물+다진 마늘을 섞어 소스를 만든뒤 상에 곁들여서 먹을 때 버무린다.

◆요리포인트

마늘은 잣소금 만드는 것처럼 다지는 것이 좋고 소스에는 겨자를 약간 섞어도 좋다.

캐나디안 랩소디 -Canadian Rhapsody- ⑨

글·그림 신동헌



◇잭크애스·인

심산유곡 깊은 산중에서 집한채를 만났을때의 나그네의 마음은 그집의 주인이 누구이든간에 반갑기마련이다.

캐나다의 외딴곳 첩첩산중에 음식점이 한채있고그 앞뜰 계양대에 나붓기는깃발을 보았으니 다름아닌우리의 태극기였을때의 필자의 가슴뿌듯한 감격을 상상해 보라. 무슨 공관이설만한곳도 아니다. 그러기에 그 태극기는 더욱이나 반갑고 감격스러웠으며 얼른 주인을 만나보고 싶었다.

뱅쿠버로부터 세시간반정도 대륙횡단 하이·웨이를 달리면 "잭크에스"(Jackass)란 괴상한 이름이붙은곳이 나온다.

"잭크에스는 숫나귀"란 뜻인데 이곳에선 야생나귀의 총칭으로도 쓰인다고한다. 뒷산에는 잭크에스 도있고 토끼, 노루는물론 때때론 곰까지 어슬렁거린다고 한다. 그런 야생동물들이 제멋대로 돌아다니는곳이라니까 깊은 산중이란실감이 충분히 간다. 가구는 한한가구, 상주인구 2명 마을이라고 부르자니 집수나 사람수나 형편없이 모자라다.

음식점 이름은 "잭크에스·인"(Jackass Inn)주인은 정형준씨, 금년나이 44세 경상도 태생이다. 청년시절엔 모외교관의 운전수노릇도 했으며, 제주도 귤농장의 농장장도 지냈다.

8년전에 캐나다로 이민왔으며 잭크에스에 자리잡은지는 2년반이되고 현재음식점뿐만 아니라 급유, 주로 대형트럭을 상대로하는 서—어비스업까지 손수하고 있다. 우선 캘가리에와서 자동차정비업을 경영하면서 뼈가 부서지도록일을하여 약간의 돈을벌어이 음식점을 인수받았다고 한다. 먼저는 캐나다인이 경영하다가 너무 쓸쓸하고하여 도무지 못해먹겠다고한다.

"남들이 싫어하는일을맡아서 하고싶은게 제 성미이고 그것이 말하자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파이어니아·스피릿트가 아잉기요? 헛 헛 허"정씨는 경상도 사나이답게 호탕하게웃는다.

이 외딴곳의 개발과 고객에대한 그의봉사를 가상타여긴 주정부에선 개발장려금도 주겠다는 제의도있었으나 굳이 사양했다고한다.

"그걸 받으면 평생 이곳에 묶일 가능성도 있으니 말입니더. 싫다고 말한게 아잉기요? 저는 말입니더. 이곳일이 어느정도 성공하면 누구한테 물려주고 적당—한 황무지를 찾아서또 개척하러 떠날라캅니더. 뱅쿠버로 그로서리나…? 웃기지 마이소. 돈도 좋데만은 그게어디 사나이가할 짓인기요?"정씨는 고개를 설레설레 젓는다.

이 음식점은 연중무휴, 하루 24시간 오픈의 한국식 돌관영업이다. 낮에는 서양인 할머니가 주방일을, 역시 서양인 소년이 웨이터를 맡아보고, 저녁교대시간이되면 젊은 정씨부인이 혼자서 야근을한다. 처음에는 여자혼자서 야간근무를 하자니 무섭기도 했는데 지금은 익숙해져서 괜찮다고 하지만 그래도 장하다하지 않을수 없다. 필자를 알아보고 이런데서만나게 될줄은 몰랐다고 하면서 몹시 반가워했다. 정씨는 밤 늦게까지 정비업을 하자니 지쳐서 식당옆에지은 작으마한 침실에도 갈 겨를없이 식당벤취에그대로 쓰러져 자기가 일수라고한다.

그의 취미는 사냥, 낚시, 사진등이며 유콘테리토리등 북쪽 황무지도 카메라를 들고 여러차례 답사했고 심중에는 아마 다음의 정착지를 점찍어 놓은것같기도 하다.

혹시 지나다가 들린 어떤 한국인은 너무 반가워서 눈물까지 흘리는예도있다고 한다. 적당한곳이 발견되면 한국인들만이 오순도순 모여서 살수있는 한국인촌을 건설하고 싶은게 원대한 포부라고도 한다.

앞뜰에 굳이 태극기를게양하는 까닭을 물었더니 "별다른 이유야 있겠읍니꺼? 한국인이 여기있노라— 그런뜻도 있겠고요, 이곳 잭크에스의 주인은 나하고집사람 뿐이니 이일대는 정형준왕국이다—그런얘기도 될겁니더, 으앗 핫 핫"

"잭크에스의 태극기"무슨 영화제목이 될만도 하다.

◇정형준씨와 마스콧트

〈매일연재 소설〉

사슴을 먹고 사는 사람들 ⑱

팔리·모왓 원작, 한재훈 옮김

그 소리는 내가 알아볼수 있었지만 소리의 깊이가달라졌다. 그 소리는 점점커져 대지를 울리는 소리로 갑자기 바뀌면서 큰 성대에서 금방튀어나오는 듯한 굉장한 소리로 변했다. 오두막집이 부르르 떨리면서 식탁위에 놓여있는 접시가 미끄러 지면서 지진의 율동에 맞추어 춤을추는 듯 했다.

쏟아지는 비를 무시하고 프란쯔는 밖으로 뛰어나갔고 나도 뒤를쫓아나가보니 두께가 적어도 10피트가되는무지무지하게 큰 얼음덩어리가 우리가 서있는 문에서 20보정도밖에 안되는 강으로부터 솟아 올라오고 있는 무서운 광경을 목격했다. 그 얼음덩어리는잠시동안 어마어마한 비석처럼 서 있더니 앞으로 기울면서 성난 파도같은 다갈색의 호수에 떨어질때 밀려들어오는 얼음조각들 위로 그큰 몸둥이를 내 던졌다. 강물은 얼음조각 위로 기둥처럼 솟아오르더니 부서진 얼음조각들이 벼랑위에 서있는 우리의 문밖까지 튀어 올라왔다. 잿빛의 빗속을 통하여 이미 내 발목까지 차올라오는 대홍수를 바라만보고 있었다.

우리가 들은 처음의 굉장한 소음은 어떤일이 벌어질 것인가 경고하는 것이었으며 이제 강물은 큰 북소리처럼 소리내며 마구 밀려 들어오고 있었다. 얼음이 산산조각으로 부숴지며 강물이 흐를때 천둥처럼 괴상한 소리를 내었다. 그리고 아직도 얼어있는 만쪽으로 육중하게 흘러내려갔다. 이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은 아닌밤중에 홍두깨 식이었다.

강물이 만에 겹어들어막혀버리자 물이 삽시간에불어올랐다. 강물이 막 쏟아져 내려가자 만에 아직도 얼어있는얼음이공기의압력을이겨내지못하고 산산히부숴질때 작은 유리조각같은 얼음먼지가 가득 채워지는 것을 쏟아지는 빗속에서도 바라볼수가 있었다. 집채만한 크기의 얼음 덩어리는 금방 부숴지고 만에 얼어붙은 완강한 얼음을다시 그 크기만큼 부숴트리며강의 입구에서부터 천천히뒤로 물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강의얼음은 그이상 깨어지지않고 물위에떠있는 큰 얼음덩이는 강어구로 떠내려 가더니 막혀버렸다. 강물은 삽시간에 불어나 오두막집에도 정강이까지 찰만큼 물이들어왔고 15피트깊이의 강이 이제는 30피트의 깊이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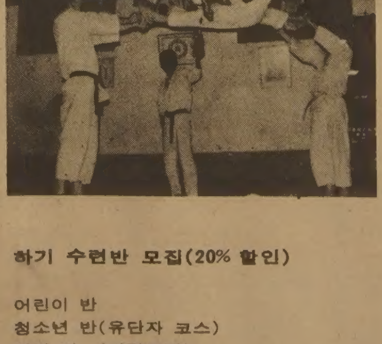
얼음으로 땜울이룬 강으로 밀려오는 큰 얼음덩이들은 갈피를 못잡고 떠다닌다. 그중의 하나는 큰코끼리가 그의힘을 다해서서있는 나무를 처받듯이 오두막의 통나무벽을 뚫고들어왔다. 프란쯔와나는 언덕으로 도망쳤고 집과물건을 염려할 겨를도없이 혼비백산이 되었다. 건너편의 얼음으로막힌 강의좁은 입구가 점점 커지면서 한번 몸부림을 쳤다. 또 계속 떠내려오는 얼음덩어리가 붙어있는 높은강물위로 마구 사납게 부딧쳐오자미처버린 강물속으로 오두막을 건질수가 없을것 같더니 땜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순간 물이붙기 시작했던것처럼 강물은 아직도얼어있는 만쪽으로 감쪽같이 빠져버렸다. 수천톤의 얼음덩이는 고삐가풀린 강물을따라 천천히 떠내려갔다. 너무갑자기 땜은 자연스럽고 힘없이 무너져버린 느낌이었다. 그러나 작은집채만한 얼음이 갑자기 땜을부수어뜨린 속력은 산에서 굴러떨어지는 돌처럼원디베이의 만마일 밖에서깨어진 얼음을 뚫고 떠내려온 힘이었다. 그 얼음덩어리는 바위에 걸쳐있어서다음 몇일동안 햇볕에 녹아없어졌다. 그것이 남아있는동안 그것은 이땅이 갖고있는힘의 상징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프란쯔와 나는 소음과전쟁터를 방불케하는 난장판에 정신을 빼앗겨서 개들이 우리가있는 산등성이까지 올라오는것을 보지못했다.

나무로만든 썰매가 자갈밭위에 끌리는 소리를내며 우리옆에와서 우뚝 섰때까지 전혀몰랐다. 개들은 줄에묶여있는채로 앉아있고 길잡이개 옆에 서있는 가느다란 청년이 한스라는것을 곧 알아볼것 같았다. 그늘져 보이는 그의인상을잠간 바라보는동안 썰매에서 두개의 짐보따리가"툭겨져 나오더니 그중 하나는 털옷을 껴입은 깡충깡충뛰는 아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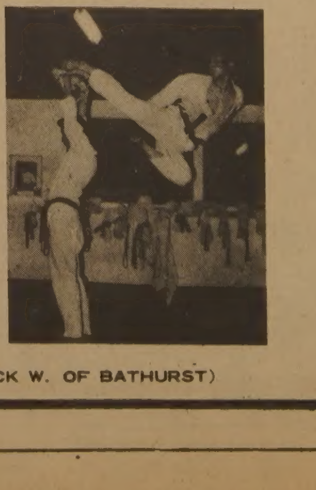
(계속)

화랑태권도학교



서 정 길(7단)

●전 한양대 태권도 대표선수
●전 공군첩보요원 지도사범
●전 송무관 중앙도장수석사범
●전직 대통령경호실 경호관, 경호요원 지도사범
●현 카나다태권도협회 이사, 한인태권도협회 부회장



하기 수련반 모집(20% 할인)

어린이 반
청소년 반(유단자 코스)
성인 반 (건강유지)

●침술진료시간12:00~오후06:00
(개관식은 추후예정)
☎: 630-3095

676 SHEPPARD AVE. W. (1 BLOCK W. OF BATHURST)

사진의 전당

TECH PHOTO LAB
INDUK RHEE
PRESIDENT
630 BLOOR ST W.
TOR ONT

■ 각종증명사진
■ 현상, 인화, 확대
■ 출장환영
■ 결혼사진
■ 회갑사진
■ 돌 사 진

☎535-7772

새한칼라현상소

日의 對韓자세 銳意주시

金外務 交委보고 日도 玄峻極 反韓정치활동 是認

〃실질적 合意없다〃통보

再發방지에 強硬…日、日朝聯에 警告

이날 金東輝 외무차관은 보고를 통해 「정부는 19일 마에다(前田)駐韓日本대사를 외무부로 불러 玄의 反韓的 정치활동을 日本정부가 실질적으로 저지하지 않은데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고 앞으로 日本정부의 對北傀정책을 밝힐것을 요구했다」며 「異濟(?)駐日대사의 20일 귀국도 玄의 訪日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玄과 日朝友好연맹 사이에 정치선전이상의 실질 문제가 타결된 것은 없으나 정부는 앞으로 이러한 사태의 再演을 방지하기 위해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지난 17일 玄이 日朝우호연맹과 무역대표부설치 문제등을 논의했을때 일본정부에 강력히 항의, 응분의 조치를 취해줄것을 요구했다」며 「日本정부도 玄이 정치활동을 했음을 시인하고 구노(久野忠治)日朝우호연맹 회장에게 경고서를 발송했음을 우리정부에 알려왔었다」고 밝혔다.

金차관은 「이번 玄이 訪日중 日朝의원연맹간에 논의된 사항중 실질적으로 결론을 내린것은 없다고」 밝히고 「무역대표부를 설치하자는 日朝의 원연맹제의에 대해서는 북괴가 원칙적인 환영의사만 표명했으며 반면 북괴가 제시한 정치인의 交流문제는 일본측에서 難色을 표했다」고 설명했다.

金차관은 이어 「정부는 玄의 訪日에 앞서 玄이 75년의 訪日에서도 정치활동을 자행한바있다」고 말하고 「당시 日本정부는 과거 두차례 訪日 허가를 했음에도 양국우호관계를 위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견해를 밝힌바 있다」고 말했다.

◇20일 국회외무위에서 정부의 최근 韓日관계에 관한 보고에 앞서 朴東鎭위원장(右)이 金東輝외무차관과 잠시 회의진행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있다。

국회는 21일 外務委를 열고 정부로부터 최근 北傀玄峻極의 訪日중 反韓的인 정치활동으로 빚어진 韓日관계의 진상과 앞으로의 對應策에 관해 보고를 받았다. 外務委는 당초 이날 보고청취에 이어 日本의 對한반도정책에 관해 일련의 질의를 벌일예정이었으나 盧信永외무장관이 다른日程으로 출석하지못해 다음기회로 미루기로했다. 정부는 이날 최근의 中東정세에 관해서도 보고했다.

中東사태 混亂계속…한국인 安全노력

이날 金차관은 中東정세보고에서 「작년9월 이란·이라크전쟁발발이후 中東사태는 혼란을 거듭하고 있고 이란은 強硬派의 격렬한 대립으로 惡化상태에 놓여있다」고 지적 「정부는 이같은 사태발전을 예의 주시하면서 中東에 진출해있는 10여만명의 한국인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中東사태로 인한 근로자의 피해는 전혀 없으며 앞으로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신중한 조치를 강구하고있다고 밝히고 「이스라엘의 이라크 원자로 폭격에 대해서는 정부가 유감의 뜻을 표명하는등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있다」고 설명했다.

金차관은 이와함께 이지역에서의 南北韓수교국수는 15對12로 우리가 우세하다고 보고했다. 이어 河興(?) 金聖子, 李慶淑(이상民正), 申鉉洙(民韓), 林德圭의원(국민)등은 中東정세에관한 질의에서 ◆中東에 진출해있는 한국근로자의 안전대책◆中東분쟁으로 인한 석유수입및 해외건설 차질여부◆한국의 對아랍·아프리카 외교 대책등을 물었다.

이란 強·穩派 첫流血충돌

사드르支持者、호鎔派공격…15명死亡

革命수비대、暴動진압위해 射擊계속

【테헤란20日AP=聯】 이란수도 테헤란에서는 20일하오 바니·사드르 대통령 지지자들과 혁명수비대의 지원을 받은 회교과격파 시위자들간에 유혈충돌이 빚어져 수비대원 3명을 포함한 15명이 사망했다. 데모대는 경찰차량과 오토바이등에 방화했으며 총격지역에서는 발포소리가 하오늦게까지 들렸다.

이날 바니·사드르를 지지하는 국가회교도단체인 무자헤딘·에·할크 (인민의십자군) 소속 가맹원 3천여명은 反호메이니시위를 전개, 폭력충돌을 일으켰는데 목격자들은 2주전 총격이 시작된이래 이날처음으로 양측 2명이 총격으로 사망한것을 보았다고 말했다.

이 화기를 사용했다고전했다. 테헤란의 주요상가인 모사데그街의 목격자들은 적어도 이들2명은 머리에 관통상을 입고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통신과의 전화에서 한병원대변인은 응급실이 대만원이라고 전했다.

구급 50명이 이병원에 수용돼있는데 그중 10명은 총상을입은 환자이며 계속부상자들이 병원으로 이송되고있다고말했다.

다른병원들은 부상자중에는 刺傷을입은사람들도 있다고말했다.

한편 국영방송은 정규프로그램을 중지하고 혁명수비대의 24시간경계령을방송했다. 수무자 철폐를지키던무자헤딘은 「바니·사드르, 바니·사드르, 저항하라」「바니·사드르는우리의대통령이다」라고외쳤다고 목격자들은전했다.

【테헤란20日AP=聯】 이란 혁명수비대는 20일 바니·사드르派 지하게릴라그룹의 대모를 해산시키기위해 이틀째 공포사격을 계속했다.

이날 회교와 마르크시즘을 혼성한 과격회교단체인 무자헤딘·에·할크團의 3천여명이 번화가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자동차들에 불을지르는등 폭동을 일으키고 혁명수비대와 대치했다. 혁명수비대는 데모대로부터 무차별 공격을 받았다.

목격자들은 데모군중들이 다리에 총상을입었고 1명이 머리에 부상을입었다고 말했다.

혁명수비대들은 피해내역과 무자혜딘 당원 수십명의 체포와 25명의 대원이 부상당하는등 사태가 험악해지자 약15분간 공포사격을 하였다.

발레비 前王을 몰아내는데 일익을 담당하였던 무자헤딘 당원들은 최근 바니·사드르 대통령을 둘러싼 권력투쟁에도 ...

北送청년 數百名 체포

北傀 〃資本주의 毒素뿌린다〃 彈壓선풍

激增하는 非行문제…北送교포에 뒤집어씌워

【東京20日=聯】 북괴는 최근 자본주의독소를 북한사회에 퍼뜨리고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北送청년 수백명을 투옥하는등 北送교포에대한 대대적인 탄압선풍을 벌이고있다고 20일 북한과 조총련에 정통한 소식통이 밝혔다.

이 소식통에 의하면 북괴는 격증하는 비행청소년문제, 뇌물공여와 암거래성행등 부정부패의 만연과 이에 따른 민심불안등에 골머리를 앓고있으며 이같은 현상의 책임을 모두 일본이라는 타락된 자본주의사회에 물든 북송교포에게 뒤집어씌워 주로 청소년 수백명을 박사회격리 불순분자라고 체포했다.

이러한 탄압소식이 전해짐에 따라 현재 조총련 내부에서는 북송가족들의 신변에대한 불안감이 팽배해 북괴당국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이 소식통은 말했다.

한편 북괴는 최근 金正日직계의 공작원을 일본에 보내 조총련조직을 점검하는등 조총련에 대한 직접지배체제를 강화하고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20일 교통부기획관리실장 직무대리에 金昌甲도시교통국장을 승진발령했다.

교통부企劃室長 金昌甲씨

APPU대표 出國

아시아·太平洋의원연맹(APPU) 한국대표단 (단장 韓炳寀의원·民正) 일행 8명이 오는23일부터 27일까지 臺北에서열리는 APPU 제30차 이사회에 참석하기위해 21일상오 9시30분KAL편으로 출국한다.

이들 대표단은 이번회의에서 金大統領의 1·12제의및 6·5제의와 우리나라의 평화통일노력을 설명하고 ▲지역안보▲한국의 평화통일노력▲경제협력문제등에관한 3개결의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共產圈문제 연구소 理事長에 方性出씨

사단법인 共產圈문제연구소는 19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신임 이사장에 方性出씨(6代국회의원), 총무이사에 金鍾浩씨, 사무총장에 申...

〃레이건·스즈끼聲明 拘束力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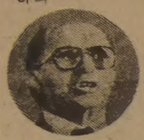
美·日外交불씨 發言

소노다外相、아세안會議서

【東京20日=聯】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확대외상회의에 참석중인 소노다·스나오일본외상은 20일 지난5월초 발표된 레이건—스즈끼 공동성명과 관련, 『공동성명은 외교상 구속력을 갖고있지않다』고 ...

오로지 정상회담 자체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다』고 주장, 미일외교에 새로운 분쟁의 불씨를 던졌다.

마닐라발 교오도통신에 의하면 소노다외상의 이날 발언은 일본정부가 앞으로 방위증강문제를 둘러싼 협상에서 동맹관계에 따른 역할분담을 명시한 공동성명보다는 레이건—스즈끼 2차정상회담시 현안사항을 ...



◇베긴 이스라엘수상

◇사다트 埃 대통령

「人氣」와 「實利」의 저울질

베긴、總選준비급급…레바논爆擊때마다 好評얻어

사다트、시나이半島 撤收문제로 친숙할 필요느껴

섭씨39도의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熱沙시나이 남단의 오피라휴게소.

베긴이스라엘수상과 사다트이집트대통령은 「가열되고있는 이스라엘—시리아미사일위기문제를 놓고 4일 마주앉았다.

베긴은 사다트에게 무엇을 주문할 것인가. 총선의 두거울은 미사일위기란 돌을 저울리는 노력이란 표면적인 명분을 내세운다.

그러나 두사람의 속셈에는 이 정상회담이 정치적 입장을 강화시켜 줄 것이라는 타산이 깔려있다.

오는 6월30일 총선을 앞두고 있는 베긴은 사다트와의 회담이 국내에서의 정치적 인기를 높여 줄 겨 게 이용해왔다.

...

柳民韓총재 出國

美·中南美등巡訪

柳致松 民韓黨총재는 美國과 멕시코·브라질·아르헨티나·콜롬비아·칠레등 中南美5개국을 순방하기위해 20일하오6시 KAL機편으로 출국했다. 〈사진〉

T. P. ADVERTISING GROUP

바우종합광고회사

- 간 판 부 : 각종간판 · 윈도우 싸인 · 쇼-카드전문
- 그 래 픽 디자인부 : 신문광고 · 상업디자인 · 비지네스및 개인명함 · 회사나 단체 마-크 · 각종포스터및 팜프렛
- 인 쇄 부 : 도서(책자) · 편집및 출판(광고지 포함)

637A BLOOR ST. W. TORONTO.
☎ 535-0647, 0545
대표 송 관 현

한국일보 詩壇

흐르는 물에 몸을 담고

高炯烈

산보다 높은 하늘보다
맑게 흐르는 그것에 누워서
아무에게도 전할 말이 없다.
개밥바리 필 쯤 되면
이를 아는 뱀어들은 어디서 잘들며
길보다 낮게 가서 안 오는 게 뭔지.
흐르는 물에 몸을 담고
여울에 여울이 물처럼 흐르길레
밤하늘로 하얀 잠만 水葬같이 오겠구나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구독신청은 (416) 533 · 2361

결혼 · 약혼 예물은 로렉스와 다이아몬드 전당 은하 보석상에서

오늘의 금은 시세
금 : 온스당 US 4__
은 : 온스당 US 10.__

은하 보석상
635 BLOOR ST.
534—9977
424—2599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교포 사회의 등불 한국일보
빠른 소식!
놀라운 광고 효과!
(416) 533 · 2361

샘터의상실
숙녀복, 파티드레스
웨딩드레스
단체주문 환영
디자이너 MR. 김
606 BLOOR ST. W.
☎ : 535—4441

주식회사
신의상사
취급품목 ◆담배류 ◆쵸코렛및 캔디류 ◆GROCERY BAG류
116 TYCOS DR. TORONTO
TEL. 781-6669 • 781-6660 • 781-6012
대표 문인식

유일한 한국인
강찬영변호사
534—1129
534—1120

한국일보 일간발행기념
교포위안 대공연
1981년 7월3일(금) 7 : 30 P. M.
CENTRAL TECHNICAL SCHOOL 725 Bathurst
(Bathurst × Harbord)

여러분의 삼복식품

한번 와 보세요.
또 오시게 됩니다.
왜냐구요?
삼복식품점은
첫째 : 친절하고
둘째 : 정직하고
세째 : 물건이 싱싱하니까요
그리고 만족한 쇼핑을 하고 돌아가시게 끔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읍니다.
여름철 식탁준비는 친절하고 정직한
삼복식품점으로……

① 물오징어 BOX당	$12.95
② 조기(굴비용) BOX당	55.50
③ 물미역 BOX당	44.50
④ 미역줄기 BOX당	44.50
⑤ 당 면 BOX당	120.00
⑥ 냉 면 BOX당	45.80
⑦ 이면수 1 lb 당	2.95(½price)
⑧ 삼 치 1 lb 당	2.25(½price)
⑨ 한국산고추가루 1 lb 당	3.45
⑩ 한국산동태 1 lb 당	1.25

삼 복 식 품 2437 FINCH AVE. W. 전화 : 743—8270

地下鐵 3·4號線 工期 1년간 延長

物價상승으로 工費2배로 늘어

82·83년 公債2천억 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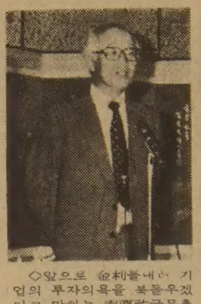
財政資金지원 海外起債도추진

정부는 물가상승으로 工事費가 당초예상보다 두배이상 늘어난 서울市 地下鐵3、4호선 建設工期를 1년간 연장하고 그래도 부족한 공사자금을 82、83년 각 1천억원씩의 公債발행과 재정·금융자금 보조증액으로 지원토록 결정했다. 20일 서울市를 비롯하여 경제기획원、건설부등 관계부처가 협의、고위층의 최종 裁可를얻은 서울地下鐵 건설계획 조정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都心교통난등을 가중해온 既착공 지하철공사의 조기완공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지만 인플레에따른 資材費·人件費 상승등 倍增한 공사비부담때문에 오는84년까지 완공목표였던 3호선 (범제~良才洞)과 4호선 (上溪洞~果川)의 건설工期를 1년연장하고 2호순환선은 당초계획대로 추진토록 했다.

또 부족한자금은 현재23개 大型건설업체가 참여하는 서울지하철건설주식회사를 개편、지하철 公社로 발족시키는것을 계기로 82、83년매년 1천억원씩 모두 2천억원규모의 지하철公社채권을 시장 實勢금리로 발행、일반소화하고 財政과 金融부문에서 각 82년7백억원、83년8백여원씩 재정자금과 금융자금지원폭을 늘리는한편 海外起債도 추진、내년중엔 歐美금융시장에서 5천만달러、83년엔 일본에서 1억달러상당의 円貨표시채권을 발행키로했다。

이와함께 84년이후의 지하철공사추진은 지금까지의 首都圈內교통소통 중심에서 서울都心과 서울주변 衛星都市를 개발、연계시키는 방향으로 전면전환한다는 원칙아래 지하철추진계획 마스터·플랜을 구성토록하고 지하철건설이나 衛星도시개발에따른 개발이익은 앞으로개편、발족될 지하철公社에서 환수한다는 내용을 그定款에 삽입토록했다。

그런데 내년부터 발행계획인 지하철公社채권은 자동차등록이나 음식점허가등에 강제、첨가소화하는 현행의 지하철 채권과는달리 연리22%수준의 實勢금리로 産金債처럼 일반에게 매각소화하며 이에따른 利差10%는재정자금에서 1백억원을 보전해준다는 내용이다。



◇앞으로 金利를내려 기업의 투자의욕을 북돋우겠다고 말하는 南悳祐국무총리。

"金利" 장기적으로 下向調整

換率문제 쇼크療法 안쓸터

南총리 經濟4團體 간담

南悳祐국무총리는 『金利는 장기적으로 내리는 방향에있고 내릴전망이 보인다』고 말했다。

經濟4단체가 20일 상오8시 서울新羅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마련한 국무총리 초청 상공인 간담회에 참석、이같이 말한 南총리는 환율문제에대해 『이른바 쇼크요법은 쓰지않겠으며 그럴 요인도 없다』고 잘라말했다。 그러나 『환율의 안정수준을 유지하되 變動換率制의 본질은 살아있다』고 밝힘으로써 금년도 환율변동폭을 5% 범위내에서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목표가 절대불변한것이 아님을 분명히했다。

南총리는 민간주도 경제체제에대해 민간주도란 민간책임을 전제로하는 것이라고강조하고 민간주도라고해서 정부의 정책이 적극성을 잃거나 역할이 약화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기술및 인력개발이나 輸出발전등 국가적차원의 중요산업부문에 대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더욱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들이 원리금상환부담만 생각한다면 투자의욕이 감퇴될수있겠으나 한국경제가 正常을 되찾고있음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고 정부서도 주택분양등에서의 경기촉진및 장기적으로는 金利인하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시켜갈 방침이므로 지금 설비투자를 한다고 해서 손해는 없을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부측에서 南총리와 申秉鉉부총리、徐錫俊상공、朴鳳煥동자、李承潤재무、金顯[illegible]、權重東노동부장관이、그리고 업계측에선 經濟4단체장과 3백여명의 기업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업계의 요청사항에대한 정부측의 답변을 듣기도 했다。 민간주도경제를 표방하는 정부가 특정품목에대한 제한해제 허가및 가격규제를 하고있음은 법과 시행상의 모순이 아니냐는 朴仁煥씨(경방사장)물음에 申秉鉉부총리는 공정거래법에 가격의 사후규제를 규정한것은 이 법이 정착될때까지의 경과규정일뿐이라고 밝혔다。

假名예금 高率課稅안해

所得稅法개정 중산층 부담덜게

財務部 밝혀

재무부는 敎育稅신설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고있으나 신설시기와 과세방법을 검토중이며 假名예금이자등에 대한 높은이율의 差等課稅는 현재까지 검토된바없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20일 소득세법개정은 근로자 특히 중산층의 세부담을 덜도록 세율을조정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산소득에대해선 현재 다른세금에 비해 부담이 가볍기때문에 이를 시정키위해 현재 10%로 되어있는 예금이자및 배당소득에대한 分離課稅세율을 점진적으로 높여 장기적으로는 종합과세한다는게 기본방향이지만 이번세법개정에선 假名이자에대한 고율 차등과세가 內資동원에 직결되기때문에 현재까지 검토된바없으며 신중을 기할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감면규제법은▲경제개발을 저해하지않는 범위안에서의 감면폭축소 ▲직접감면보다 기업내부충실과 성장력강화를위한 제도로 전환▲중소기업육성▲민간기업의 기술및 인력개발에대한 지원에 중점을 두어 개정을 검토하며 法人稅率도 세율의 일부인하를 검토중이다。

奇拔한 아이디어의 꽃들

세계發明品대회 受賞作品소개

담배의 길이를 마음대로 조절한다든가 하나의 지퍼로 여러칸의 가방을 한번에 열수도있다。 흔히 지나쳐버리는 작은 불편 하나하나에 신경을 써서 기발한 아이디어의 꽃을피운다。 지난주 全대통령은 그동안 각종 세계發明大會나 아이디어競進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린 發明家들을 격려해준바있다。 한국민은 두뇌나 기능에서 拔群이다。 기능올림픽을 휩쓴가하면 각종 發明品전람회에서 金·銀賞을 석권하기도한다。 기능에관한한 이제 한국은 世界第1의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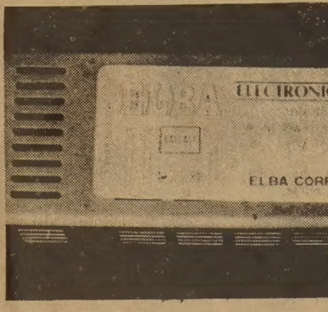
한때 각국의 精密기능을 비교해주는 우스갯말로 독일사람들은 머리카락에 터널을팔수있다는 얘기가 있었다。 그러나 일본도、한국인의 기능앞에 두손을든다。 해서 지난 5월14일부터17일까지 뉴욕에서 열린「엑스포81세계발명품전시회」에서는 金賞5개 銀賞1개 銅賞1개등을 따내 한국민 頭腦의 우수성을 과시한바있다。 이전시회에출품、受賞한 발명품의 아이디어 경쟁도마찬가지。 제네바發明品전시회를 비롯 몇가지 내용을 알아본다。

◇自動消火파이프시거렛

◇自動消火 파이프 시거렛

◆발명자 申錫均(韓國發明學會회장)=애연가들이 담배길이를 자유자재로 조절할수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길이를 자유자재로 조절할수 있는 종이파이프가 부착되어 있기때문。

담배를 피우다가 재떨이등에 얹어 놓았을때도 자동적으로 꺼질수있도록 고안되어 화재의 위험이 없다。 필터생산때에 연초가 30%정도 절약되고 니코틴과 타르가 제거된다。 현재 양산이 준비중에있다。



◇電子式형광등안정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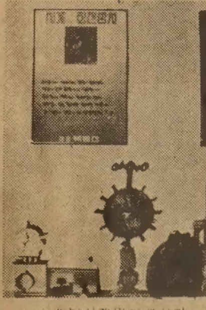
◇電子式 형광등 안정기

◆발명자 朴明求(錦波電子研究所기획조정실장)=형광등이 자동점화되는 장치。 반도체素子를 사용、형광등의 交流電源을 高周波電力으로 변환시켜 자동점화가 가능하도록 고안됐다。 소음이 전혀없으며 순간點燈재 30%의 절전효과도 나타난다고。 현재 기업화가 추진중에 있어 곧 市中에 선뵌다。

◇軟弱지반처리위한매트工法

◇軟弱지반처리위한 매트工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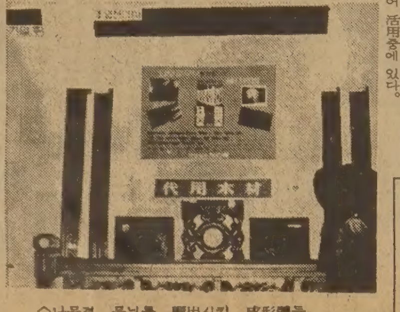
◆발명자 蔡利順(德信工業사장)=도로 철도 또는堤防등의 成土공사때에 지반이 무르면 공기가 오래 걸릴뿐더러 쌓은 제방이 쉬이 무너져 많은 공사비가 든다。 지반의 표면에 이를 깔고 공사를하면 연약한 지반이 단단하게 補強된다는것。 구조물또는 구축물의 안전성이 높아지고 공사비도 절약된다。 이 매립용 매트는 현재 量産되어 活用중에 있다。



◇시계탑시계의회전장치

◇時計塔 시계의 回轉裝置

◆발명자 朴一千(千一産業사장)=시계탑의 시계태엽을 감아주어야하는 불편이 없어진다。 일정한 장소에 시계를 설치해두면 반영구적으로 시계가 작동된다。 이작품은 풍력을 이용、풍차를 돌려 전기를 얻듯이 풍력을 이용하여 시계태엽이 자동적으로 감기도록 고안했다。 현재 제품이 생산단계에 이르고있다。 81년뉴욕세계발명품전시회에서 金賞을 탔다。



◇나무결 무늬를 顯出시킨 成形體들。

◇나무결무늬顯出 成形體 제조법

◆발명자 徐建熙(住一産業社기술상무)=최근 특수공법에의해 가벼운 材質의 콘크리트材料로만든 대용목재가 생산되고있다。 그러나 자연그대로의 나무결 효과를 나타낼수없는것이 흠。 바로 이같은 결함을제거、대용목재에 나무결무늬를 넣을수있는 장점이다。 각종 건축자재타일 천장등에 이방법으로 나무결 무늬를 낼수있다。 81년뉴욕전시회 金賞수상작。

◇3줄지퍼

◇3줄지퍼

◆발명자 李幸勇(三喜産業사장)=세가닥으로 된 지퍼로 가방 하나에 부착하면 세칸의 방을 한번의 작동으로 여닫을수있게 발명된 작품。 引張力이 강하고 가방뿐 아니라 군수용으로 편리하다고。 특히 신발등에 사용될수있다。 78년 제네바국제발명품전시회에서 특별금상을 수상했다。 현재 市販中。

【朴昊銀기자】

週間證市

내리막株價 다시自律反騰勢

鎭靜策불구 冷却기미안보여

○…우리나라證市는 철판같다。 쉬이 달았다 쉬이 식는다。 그럴듯한 好材가 나오면 주가는 규제가 없을수없이 치솟다가도 규제조치가 취해지거나 惡材가 시장을 짓누르면 금새 마라세。 지난주의 證市도 마찬가지。 週初인 16일까지만 하더라도 건설주를 중심으로한 주가는 20일남짓 지속적으로 올라 78년이후 최고기록을 세웠다。 (2·0)을 기록했다。

증권당국은 일련의 규제조치를 발동했다。 이로인해 16일부터는 투자자들이 방관하다가는 막차를 탈것같은 선의의 투자가들이 큰폭의 내림세로 反轉、17일에는 4·5포인트、18일 10·26사태직후 (10월27일) 이래 최대폭인 7·9포인트나 빠졌다。

거래량은 1천3백98만주、거래대금은 1백27억원에 달했다。 상승종목은 1백45개、내린종목은 67개였다。 그러나 증시는 일련의 진정책에도 불구하고 냉각될것 같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증권가의 전망이다。 市中 부동자금이 증권시장으로 몰려 2천억원~3천억원에 이르고 있다는 것。

권의 시장규제조치는 선의의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분석가들은 지적한다。 안정적인 건설주를 비롯한 종목별 선별이 진행되고 있다。

○…주가는 19일에는 5·5포인트 반등했으며 20일에는 다시 1·4포인트가 올라 주가는 196·5를 기록했다。

○…투자자들은 증권사 창구에 몰리고 있다。

【朴昊銀기자】

三星電子 10억발행 첫賣出맡아

어음仲介室 개업

기업어음의 발행 매출업무를 주선하는 어음중개실이 20일 문을열었다。 이날 상오 10시 서울明洞 第一빌딩내 全國投資金融協會안에 설치된 어음중개실에는 신종어음발행에 관한 각종문의등이 잇달았으나 實제어음거래는 이뤄지지않았다。

어음중개실은 오는22일 三星電子의 1백80일 만기짜리 융통어음10억원어치를 연21·608%(실수익률24%)로 첫발행키로하는등 각종 신종 기업어음 발행 매출을 중개하게되는데 기업어음의 발행금리는 최고한도는 40%이하이지만 당분간은 연22~28%선에서 발행될것으로 보인다。

한편 明洞、小公洞등 私債시장에선 정부의 기업어음제도 활성화대책이 발표된후 사채거래량이 계속 위축되어오다가 최근 1주일전부터는 거래가거의 마비되고있는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사우디 原油價하락

배럴31·5弗線까지

【東京20日=聯】 세계의원유수급관계를 표시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현물시장 가격이 1배럴당 31·5달러선으로까지 하락、79년초 이래 처음으로 공식판매가격이 배럴당 32달러를 하회하고있다고 日本의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20일 보도했다。

올 銀行취직문 활짝

11개銀3,100명 夏季채용

올여름은 은행의 취직문이 활짝 열렸다。 20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국은행을 비롯한 국책은행과 5개 시중은행등 11개 은행이 대졸 6백20명과 고졸 2천4백80명(남녀)등 약3천1백명을 새로 채용할 계획이다。

이날현재 지방은행을 제외한 13개은행가운데 중소기업은행과 장기신용은행이 중간채용계획을 아직 확정짓지 못하고있으나 각지방은행의 채용계획까지 합하면 올여름 신규채용행원은 3천5백명 내외가 될것으로 보고있다。

은행들이 오는10월 정기채용에 앞서 이같이 중간채용인원을 크게 늘려잡고 있는것은 정부가 국가경제규모 팽창에 맞추어 국내은행의 국제화 대형화를 추진하고 있을뿐만아니라 각 은행이 국민의 은행이용생활화를 위해 간이점포를 대폭 확충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재 11개은행이 여름 채용 계획을 세운 인원은 작년 여름 대졸 3백명、고졸(남녀)1천3백명에 비해 갑절이나 늘어난 규모이다。

각은행들은 민간업계가 아직도 경기침체에서 완전히 헤어나지 못하고있으며 과거 [illegible]山과 制世가 무너진이후 은행의 행원직에 대한 인식이 크게 달라졌다는 점을 감안、민간기업이나 다른 은행에 비해 우수한 인력을 먼저 확보하기 위해 추천을 통한 無試驗전형을 확대하고 완전한 公採방식도 일부 병용하고있다。

經濟短信

◆貿公 창립기념식=貿公은 창립19주를 맞아 20일상오11시 무역회관강당에서 기념식을 갖고 15년근속 7명 10년근속29명 수출유공직원 26명등을 표창。

◆KDI창설10주년기념국제학술회의=한국개발연구원(원장金滿堤)은 지난3년간 하버드大 국제개발연구소와 공동실시해온 「한국경제근대화과정」 연구결과에 대한 국제학술회의를 25일同연구원회의실에서 개최。

證券時勢

去來代金=127억원 去來量=1、398萬株
綜合指數=196·7 時勢=終價·단위=원

種目	19日	20日
1部種目		
新羅交易	632	↑×670
大林水産(普)	—	—
大成炭座開發	765	765
大韓鐵鑛	546	↑×556
大韓重石	839	⇩801
永豊鑛業	733	⇩×729
南陽乳業	570	—
三養食品	—	1,365
農心	615	—
三養社	1,000	↑1,010
第一製糖	500	↑511
해태製菓	995	⇩990
롯데製菓	—	⇩×560
크라운製菓	—	—
샘표食品	—	↑1,160
味元	611	⇩600
[illegible]	800	—
[illegible]	—	⇩×730
[illegible]	560	—
[illegible]	620	↑625
[illegible]	—	—
[illegible]	505	↑509

種目	19日	20日
慶南毛織	550	550
東洋나이론	650	—
[illegible]	585	↑586
[illegible]	597	—
[illegible]	535	—
[illegible]	500	↑505
[illegible]	540	↑541
[illegible]	561	↑575
카프로락탐	1,120	↑1,128
[illegible]	640	↑680
[illegible]	—	—
[illegible]	725	↑735
[illegible]	—	↑1,740
[illegible]	598	—
[illegible]	635	↑640
[illegible]	930	Ⓛ980
[illegible]	973	↑1,003
[illegible]	676	↑700
[illegible]	660	↑690
[illegible]	719	↑735
[illegible]	—	⇩830
[illegible]	681	⇩×680
[illegible]	685	⇩680
[illegible]	630	630
[illegible]	610	610
[illegible]	—	—

種目	19日	20日
國際藥品	400	↑410
韓一藥品	—	↑700
同和製藥	—	—
大韓中外製藥	609	⇩×604
鍾根堂	769	⇩×765
韓獨藥品	680	—
綠十字	—	—
太平洋化學	605	↑626
韓國化粧品	570	—
韓國火藥	730	Ⓤ780
大韓石油持株	1,305	Ⓛ1,375
三千里産業	—	↑631
天成産業	944	944
韓國石油	1,198	↑1,220
韓國타이어	563	⇩561
三陽타이어	540	540
三元産業	512	↑518
東一고무벨트	—	↑1,001
내쇼날푸라스틱	690	↑700
三榮化學	860	Ⓤ910
韓國유리	787	↑810
韓一시멘트	520	⇩515
雙龍洋灰	540	540
現代시멘트	522	—
星信洋灰	428	↑430
東亞콘크리트	1,010	↑1,060

種目	19日	20日
[illegible]	680	↑690
江原産業	600	↑610
韓國鑄鐵管	—	—
韓國鋼管	535	↑543
[illegible]	720	↑×725
高麗製鋼	678	—
[illegible]	660	↑661
[illegible]	—	—
[illegible]	650	650
[illegible]	495	495
[illegible]	—	⇩680
[illegible]	—	650
[illegible]	—	—
[illegible]	655	↑671
[illegible]	559	559
[illegible]	892	↑900
[illegible]	1,260	↑1,280
[illegible]	890	↑900
[illegible]	1,280	↑1,301
[illegible]	1,301	1,301
[illegible]	993	↑1,019
[illegible]	1,500	—
三星電子部品	1,540	1,540
韓國電氣	1,300	⇩1,290
오리온電氣	1,380	1,380
金星電氣	895	⇩875

種目	19日	20日
오리엔트時計	599	⇩590
韓獨(普)	—	—
모나미	631	↑649
[illegible]	600	—
[illegible]	—	—
[illegible]	1,360	Ⓤ1,430
[illegible]	1,375	↑1,400
[illegible]	1,760	1,760
[illegible]	1,060	⇩1,050
[illegible]	1,901	↑1,921
[illegible]	1,040	↑1,079
[illegible]	1,170	⇩1,130
[illegible]	1,751	Ⓛ1,821
[illegible]	1,119	⇩1,080
[illegible]	1,390	↑1,399
[illegible]	575	↑599
[illegible]	975	⇩968
[illegible]	1,285	⇩1,265
[illegible]	1,462	↑1,490
라이프住宅	1,100	↑1,119
太平洋建設	1,029	⇩990
進興企業	1,070	⇩1,060
大宇開發(普)	1,565	↑1,575
京鄕建設(普)	770	↑790
三湖住宅	1,080	⇩1,056
共榮土建	1,291	⇩1,280

種目	19日	20日
錦湖建設	—	775
[illegible]	—	866
[illegible]	1,290	↑1,300
코오롱綜建(普)	890	↑898
高麗開發(普)	860	↑880
[illegible]	1,290	↑1,331
[illegible]	1,161	⇩1,150
[illegible]	980	⇩970
[illegible]	537	537
[illegible]	622	⇩617
[illegible]	810	⇩800
[illegible]	628	628
[illegible]	651	↑670
[illegible]	590	↑599
[illegible]	535	⇩529
[illegible]	726	726
[illegible]	625	↑644
[illegible]	1,070	⇩1,069
現代綜合商事	—	—
美都波百貨店	530	—
[illegible]	1,000	↑1,020
[illegible]	628	↑630
[illegible]	1,070	↑1,119
[illegible]	850	⇩830
[illegible]	785	⇩770
[illegible]	1,191	↑1,193

種目	19日	20日
朝興銀行	1,034	⇩1,031
第一銀行	1,030	1,030
韓一銀行	1,190	1,190
서울信託銀行	1,015	1,015
2部種目		
三立食品	420	420
[illegible]	568	—
東洋麥酒	620	↑630
朝鮮麥酒	780	⇩750
[illegible]	1,032	↑1,045
日新紡織	—	—
忠南紡織	385	↑393
코오롱(나이론)	581	⇩580
코오롱(폴리)	581	↑586
鮮京合纖	606	↑612
東洋化學	564	↑583
韓國프라스틱	1,390	—
[illegible]	350	350
콘티넨탈카본	800	↑849
[illegible]	470	↑×492
亞細亞시멘트	350	350
東洋세멘트	350	⇩340
韓國스레트	370	⇩360
聯合鐵鋼	—	↑×431
日新製鋼	360	3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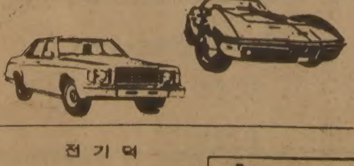
種目	19日	20日
釜山파이프	480	480
[illegible]	470	⇩468
[illegible]	447	⇩440
[illegible]	650	⇩645
[illegible]	750	↑760
[illegible]	949	↑950
[illegible]	525	↑545
[illegible]	950	↑969
[illegible]	496	↑520
[illegible]	478	↑480
[illegible]	410	↑420
現代自動車	460	↑475
東亞自動車	390	↑407
三星綜合建設	714	↑726
韓國建業	740	740
大農建設(普)	463	↑471
美成建設(普)	406	↑410
新韓機工建設	395	⇩385
新東洋建設(優)	405	↑420
瑞通	407	⇩392
[illegible]	450	450
錦湖實業	390	⇩380
[illegible]	400	400
東洋高速	430	430
大韓航空	520	↑530
[illegible]	500	↑530

➤ 한국인의 바디 샵

Master Auto Body

저는 15년의 경험과 캐너더 정비사 자격증을 소지하였읍니다. 오시는 손님에게 기계적 분야를 무료 상담하며 체크도 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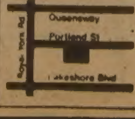
- 사고 보험관계 일체처리!
- 교포여러분께 특별염가봉사
- A급 BODY MAN
- 완전한 차체수리
- 페인팅 (OVEN BAKE FINISHES)
- 수리중 자동차 대여
- 무료견적
- 사고차량 픽업 서비스



전기덕

95 Portland St. Toronto

Bus. 255-2111
255-1000
Res. 231 2822



意安飯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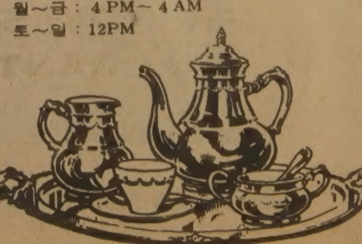
의 안 반 점

홍콩식 그대로의 분위기, 새벽 4 시까지 영업

일류 요리사가 만드는 전통적인 광동식 요리,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값싸고 맛있는 음식.

※항상 신선한 럽스타, 게, 굴, 해삼, 전복 등을 준비해 있읍니다.

영업시간 :
월~금 : 4 PM~4 AM
토~일 : 12PM



171 DUNDAS ST. W.
(Spadina동쪽으로 Chestnut코너)
☎ : 977-9734

미국 이민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기를 원하십니까?

- 이민쿼터제
- 노동허가법
- 학생비자발급
- 그외의 문제등, ·또한 지금 어떠한 종류등 이민수속을 하시는데 문제가 있으신분

위와 같은 여러분들이 알고자 하시는 문제들에 대하여 전화나 편지를 주시면 뉴욕에서 다년간 이민법에 종사하신 미국인 변호사 ROGER C. ALGASE(알게이즈 씨)께서 좀더 알기쉽고, 자세히 성의껏 답해 드립니다.

사무실엔 항상 한국인 보조원이 계시어 불편없이 도와드립니다.

연락번호 : (212) 762-5100
연락주소 : 136-31 ROOSEVELT AVE. Suite #2 FLUSHING, N. Y. 11354

부산대학교 동창 야유회

초여름 우거진 숲속에서 오손도손 모여 앉아 이야기 꽃을 피웁시다.
음료수및 불고기등은 회장단이 준비하고 가족들을 위한 게임도 준비되어 있읍니다.

일 시 : 7월4일(토요일) 오전10시
장 소 : ROWNTREE MILLS PARK
(Islington × Finch Ave.에서 Islington북쪽)

연락처 : 755-9902

부산대학교
동창회장단

「80年代의 資源政治·에너지와 安保」

세미나

날로 심각해져가는 자원난과 시대의 흐름이 되어버린 자원민족주의가 현 국제정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학술대회가 한국국제관계연구소(소장 崔鍾起) 주최로 18·19 양일간 플라자 호텔에서 열렸다. 「1980년대의 資源政治—에너지와 安保」라는 主題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 발표된 각국학자의 주제 논문 4편을 간추려 본다. 【外信部】

◇「80年代의 자원정치·에너지와 안보」를 주제로 한 세미나가 6월18~19일 서울에서 열렸다.

東北亞지역의 相關性

安保와 에너지는 不可分의 관계

▲존·F·에머슨(스탠퍼드대학 美·日관계연구소소장·國際政博)

상호연관을 가진 현대세계에서는 어떤 한국가나 한지역이 세계도처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영향에서 분리될수없다.

한국가나 지역의 안보는 전세계의 안보와 직결된다. 또 한국가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자원은 세계모든국가가 필요로 한다.

東北亞지역도 예외가 아니다. 유럽이나 中東에서의 국가간 갈등은 직접적으로 아시아국가에 영향을 미치게된다. 「유럽제일주의」를 표방했던 전통적 미국對外정책은 태평양지역과의 관계에 점점 더 신경을 쓰게됐다. 태평양지역과 미국과의 교역량은 유럽과의 교역량을 능가하게 되었다.

有限자원의 利用… 共同運命

인류는 유한자원의 세계에 살고있는 공동운명체이다. 지구상의 천연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인류의 예지와 판단력과 통찰력을 동원해야만 할것이다.

미국의 아시아盟邦국가들은 미국보다도 더 에너지문제에 민감하게 됐다. 미군이 석유수송로인「생명의海路」등의 아시아 전략요충지역에 주둔하고 그힘을 증강시키는 새로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안보와 에너지문제를 분리시켜 생각한다는것은 불가능하다.

한국 에너지産業 分析

政府역할 改善해야할 여지있다

二重炭價制에 큰 效果 기대

▲李會晟(한국동력자원연구소 연구실장·經博)

한국정부의 에너지정책목표는 대체에너지개발, 안정된공급, 에너지절감으로 3大別 할수있다. 전력분야를 제시하고 석탄생산, 정유산업, 에너지절감등의 분야에서 정부역할을 중점분석해 본다.

에너지시장기능에 대한 정부간섭에 촛점을 맞춰 정부역할을 분석해본결과 정부의 석탄정책과 에너지절감정책 부문에는 개선의 여지가 많음이 드러났다.

에너지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민간부문과 정부부문사이의 밀접한 상호관계가 요청된다. 정부의 합리적인 에너지시장개입은 시장가격기능을 보완하여 에너지자원의 보다효율적이고 공평한 분배를 가져오게 할것이다.

정부가 이중炭價制를 실시한다면 그효과는 괄목할만한 것이다. 에너지절감정책은 실질적인 에너지절약방안에 보조금을 지급하면 보다 효율적이된다. 이방법은 에너지절약을 위한 혁신적고안을 자극할것이기 때문이다.

에너지문제해결은 제반경제문제해결의 관건이 된다. 정부의 에너지정책입안과 집행이 시장기능을 보완한다는 테두리에서 결정되어야 함은 당연한 요청이다.

亞洲·太平洋지역의 政治

한 強大國과의 密着경계

力關係의 마찰막게 아세안中立을 固守

▲리·테크청(인도네시아學術院 전문연구원·政博)

자원의 배후에 깔린 정치상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고서는「80년대의 자원」이란 주제에 실질적 관점으로 접근할수없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현정치상황을 인도네시아시각에서 논해 본다는것은 바로 인도네시아자원의 배후를 고찰해보는것과 같다.

인도네시아는 지정학적 여건으로 인해 개국한 이래 강대국중심의 세계정치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50년대를 貫流한 美·蘇냉전조류, 60년대의 베트남전쟁, 70년대의 미·중공 화해의 물결, 이모두가 아시아태평양국가인 인도네시아에 직접적으로 투영되어왔다. 한 강대세력과의 지나친 밀착은 다른 강대세력의 반작용을 초래하여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파괴되고 국가목표달성이 저해된다는걸 인도네시아는 똑똑히 보아왔다.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의 결성은 이러한 공통경험의 소산이었다. 아세안은 그들지역을 ZOFAN(평화자유중립지역)化 한다는데 의견일치를 보았다. 인도네시아도 이러한 아세안입장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있다.

80년대 인도네시아의 외교정책도 이입장을 기본으로 전개될것이다.

에너지危機의 克服방안

石油는 이제 汎世界的의미 지녔다

産油國과 消費國이 對話로 문제풀어야

▲사끼사까·마사오(向坂正男·일본에너지경제연구소소장)

오늘날의 에너지위기는 전세계적인 포괄적 협조관계를 통해서만 극복할수있다.

60년대 세계각국은 미증유의 경제성장과 풍요를향해 줄달음쳤다. 선진국은 고도소비사회를 구가했고 개발도상국은 산업화추구에 전력투구했다. 60년대의 에너지정책은 자원소비자인 메이저들이 결정했다. 70년대에들어 상황은 판이해졌다. 산유국들은 석유수출국기구(OPEC)를 결성하고 다투어 천연자원에대해 主權을 선언했다.

석유소비국들은 70년에 유가폭등으로인해 두차례의 에너지위기를겪었고 경기침체를 감내해야만했다.

특히 개발도상국들은 유가파동을 통해 농업및 산업발전 전략을 재검토하여 에너지를 절감할수있는 개발모델을 추구하려 하고있다. 이는 오일·쇼크에 무력함이 드러난 선진국의 전철을 밟지않으려는 의도에서다.

석유자원의 중동편재로 중동지역의 정치안정은 에너지문제와 직결되게됐다. 이는 에너지문제의 汎세계성을 의미한다.

산유국과 석유소비국의 대화는 양편모두에게 유익하다.

장기적유가정책, 석유의 안정공급, 석유달러의 재분배등이 상호이익의 원칙아래 토의될수있을것이다.

에너지위기의 극복을 위해서는 산유국과 석유소비국의 대화가 절실히 요청된다.

海底인양 그리스銅像

伊보관장소 싸고 論爭

實物크기 2개의 古代戰士 조각품

復元 끝낸후 피렌체박물관서 展示

리아체住民 "돌려달라"

【피렌체(이탈리아)AP=聯】이탈리아 에서는 요즘 이오니아 海에서 건져낸 두개의 정교한 그리스 동상을 어느도시에 보관하느냐는 문제를 놓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문제의 예술품은 지난 1월부터 피렌체의 한외딴박물관에서 전시되고있는 동상으로 기원전 5세기경 그리스의 대조각가 피디아스가 제작했다고 믿어지는 조각품들.

고대 그리스군사를 實物크기로 조각한 이두개의 동상은 각각 4백50㎏의 무게를 가지고 있으며 그중 하나는 머리에 띠를두른채 힘줄이 불거져 나온 왼쪽발을 앞으로 내디디고 당당하게서 있는모습을보여주고있다. 다른하나는 보다 편안한 자세로 명상에 잠겨있는 모습. 이두조각품이 어찌나 원형을 잃지않았고 잘보존됐는지 관람객들은 몸에 나타난 혈관과 은으로입혀진 치아, 구리로 만든 속눈썹과함께 젖꼭지까지 역력하게 볼수있다는 것이다.

피렌체 박물관의 한관리는「이동상의 모습이 워낙 생생하기때문에 만지고 싶어져 저절로 손이 나갈정도」라고 이조각품들의 예술성을 높이 평가했다.

또 이탈리아 신문들도 독일의 저명한 고고학자이자 뮌스터 대학교수인 베르너·훅스씨가「이두동상은 그리스 최고조각가의 한사람으로 손꼽히는 피디아스작품임에 틀림없다」고 감정했다고 대서특필하기도했다. 피디아스의 작품은 지금까지 하나도 원형이 발견된게없으며 다만 로마 시대에 만들어진 여러개의 복사품이 남아있을 뿐이다.

그리스의 이걸작들은 지난72년 남부 이탈리아 칼라브리아의 해안마을 리아체 연안에서 스킨다이버 스테파노·마리오티니에 의해 발견되었다. 마리오티니는 첫번째 동상을 수심8m의 바다밑바닥에서 발견했으며 전문가들이 두번째 작품을 역시 그부근에서 찾아냈다.

귀중한 예술품을 얻은 리아체주민들은 이동상을 마을광장 한복판에세워놓으려했지만 문화재를 관장하는 이탈리아 관계법규에의해 즉각복원작업이 시달되었다. 이에따라 두 유물은 리아체 주민의 손에서 칼라브리아주의 수도 레기오·칼라브리아에있는 국립박물관으로 옮겨졌으며 다시 복원작업을 받기위해 피렌체에있는 국립문화재복원센터로 위치를 옮겼다.

이때 이탈리아 문화성은 7년간의 복원작업이 완료되면 즉각 레기오·칼라브리아 국립박물관에으로보낼것을 결정했으나 복원이 끝난직후 피렌체박물관측은 문화성의 허가를받아 지난1월 2주일예정으로 이예술품에대한 전시회를 조용히 갖게됐던것.

소문없이 진행되던 피렌체전시과정에서 산드로·페르티니 이탈리아 대통령이 다른 전시회에를 들렀다가 우연히 이곳을 들러 두 조각품의 아름다움에 감동, 당국에이 전시회를 연장해줄것을요청했다.

이곳 여행사에 따르면 페르티니대통령의 방문이후 하루 1백명이던 내방객이 5천명으로 급증한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관람객들은 인근 우피지화랑에 진열되어있는 대가들의 조각보다도 이작품들을 더욱 높이평가하고있으며 주말 관광객들은 단지 이두작품만을 보기위해서 이곳을찾고있다는것이다.

이같이 피렌체주민들이 두예술품으로 톡톡히 재미를보자 애초에 두조각을 보관하기로했던 칼라브리아주민들은 분노를 폭발 시키기에 이르렀다.

특히 피렌체박물관측이 두작품을 회나 석고로 복제하기위해서 추가로 1년을 더보관할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탈리아 文化省에 요청하자 칼라브리아박물관장은 오디오·비아시니·포티문화상에게 오는7월1일까지 두작품이 칼라브리아에 도착하지않으면 사임할것이라고 위협하고나섰다.

비아시니문화상은 그리스예술품을 오는6월30일까지 칼라브리아로 반환할것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기에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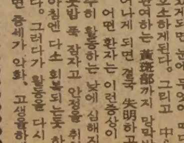
그러나 이때 페르티니 대통령으로부터 로마전시회개최 요청을 받은 비아시니문화상은 대통령의 요청을 고려한다고 밝힘으로써 두 그리스예술품은 아직도 보관장소를 정하지 못하고있다.

現代人의 健康百科

網膜剝離

떨어진網膜 수술로 다시 유착가능

金在浩(醫博·가톨릭醫大 聖母病院안과장)



망막박리란 눈속의 망막층이 바깥 上皮세포층과 分離되어 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비유하면 카메라 속의 필름이 제자리에 있지않고 찢어져 앞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되겠다.

이같은 망막박리 현상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흔히 이에 앞서 망막에 구멍(裂孔)이 뚫리게 마련인데 이는 高度近視, 망막변성, 노인성 변화, 外傷, 당뇨병, 고혈압및 硝子體의 변화등과도 관련이있다.

초기증상으론 시야에 어떤 그림자모양 또는 커튼이 흔들거리는듯한 모양을 느끼게 되며 망막박리가 점점 진행함에따라 이런증상도 점차 擴大되어간다. 초자체 出血까지 있게되면 눈에 무엇이 떠다닌다고 호소하게된다. 그리고 中心視力에 관여하는 黃斑部까지 망막박리가 일어나게 되면 결국 失明하고 만다.

어떤 환자는 이런증상이 한참 분주히 활동하는 낮에 심해지다가 하룻밤 푹 잠자고 안정을 취한 아침엔 다소 회복되는듯 하다고 한다. 그러다가 활동을 다시 개시하면 증세가 악화, 고생을하게된다. 이같은 증세가 수주또는 수개월 지속되는동안 증세는 한층 진행 악화되는 예도있다.

치료는 手術로서 박리된 망막을 다시 유착시키는 길밖에없다. 早期에 발견하면 단한번의 수술로써 90%정도의 성공률을 볼수있다. 수술후 6개월까지 계속 망막이 잘붙어있으면 일단 안심해도 좋다.

만일 망막박리직전에 망막이 찢어진 구멍(裂孔)을 발견했다든가 눈뒤의 망막부근쪽에 경미한 박리인때에는 냉동요법이나 光凝固기를사용, 간단한 光凝固術을 시행, 치유가 가능하다.

그러나 망막박리가 상당히진행된 환자는 병원에 입원하여야 하며 수술의 안정을 위해서 가운데 작은구멍(小孔)이 있는 특수 검은 안경을 매일 써야할 경우도있다.

수술은 섭씨영하70도정도의 冷凍器를 이용, 공막을 통한 맥락막에 인위적인 炎症을 유발시키는 것이다. 이렇게하면 염증성滲出物이 나오게되며 망막과 맥락막이 다시 유착하게되는데 이를돕기위해 眼球外壁을 특수한것으로 졸라매든가 또는 눈알속엔 공기나 가스따위를 注入하기도한다.

高度近視가 있는 사람은 과격한 스포츠나 무리한 중노동을 하면 망막박리가 잘 나타나기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밖에도 망막박리는 눈속의 혹(腫瘍)이 있을때도 생길수있는데 이때는 안구적출이 필요하다. 또 임신중에선 임신中毒症과함께 생길수 있으나 임신중독증이없어지면 자연치유, 유착 되는것이 보통이다.

文化短信

한국逸書·奇書·珍書전시회

永信아카데미 韓國學硏究所(소장 金根洙)는 창립8주년기념으로 15일부터 이달말까지 출판회관 1층상설전시실에서「韓國逸書·奇書·珍書전시회」를 갖는다. 매일 상오10시부터 하오5시까지 계속되는 이 전시회에는 한국최초의 高麗板 法華經, 최고의 明心寶鑑, 한국최초의 聖明, 한국최초의 邑誌등 2백점의 희귀도서들을 보여주고있다.

美브리검·영大學 民俗무용단 공연

한국국제문화협회(회장 金圭澤)는 세계적인 美브리검·영대학교 국제민속무용단을 초청, 22일 서울예고(하오2시)와 24일 국립극장(하오7시)에서 공연을 갖는다. 브리검·영무용단은 학생들로 구성된 무용단으로 매년 해외공연을 하고있는 미국이 자랑하는 민속무용단. ㉓6466

消費者교육 講演會

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장 李淑鍾)는 23일 상오10시 용산구한강로 女協회관에서 소비자교육을 주제로한 강연회를 갖는다. 소비자운동 저변확대를 위해 마련한 이번 회의에는 ▲소비자운동의 저변확대 ▲자녀를 위한 교육 어떻게 할것인가 ▲소비자운동의 확대를 위한 정부시책등의 강연이있다. (㉓5196)

職業훈련藝能강습

지혜원서 무료로

생활지혜원(원장 趙暎來)은 불교조계종 전국신도회후원으로「직업훈련을 위한 예능 기능강습」을 21일부터 종로2가 생활지혜원에서 실시한다. 문의㉓50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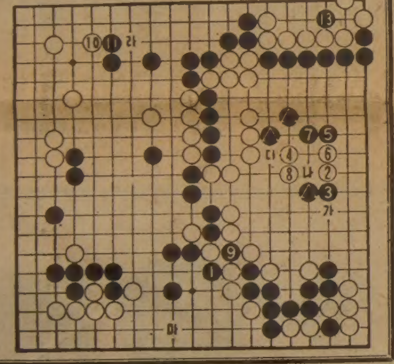
여름學校 학생모집

어린이회관은 81년도 여름학교입학생 1천5백여명을 모집한다. 국민학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한 이번 여름학교 강의내용은 수영 음악 미술 포크댄스 영화 과학실험 공작 전래동화등. (㉮6061~61)서에 받고있다.

제12기 名人戰 挑戰5番棋

第1局 第6譜 101~113　(각5시간)

白(挑戰者) 徐奉洙
黑(名人) 曹薰鉉



전보에서 黑은 중앙에 새영토를 개척하여 계바둑으로까지 세를만회하고 선수를 잡았으니, 이젠 정말로 역전하는가 싶어보였다. 그런데 이때 또 黑1이라는 실수가 나오고 이것이 곧장 패착에 직결할줄이야. 정말이지 어이없는 일이었다. 하기야 名人은 지나가는 역로에 黑1을 선수해 놓고 차분히 승리의 길을 모색할 심산이었을터이지만, 白이 패를 각오하고 재빨리 2의곳에 깊숙이 돌진하자 黑은 문제발생. 당초 우변은 아래위의 철벽을 방패삼고 ▲표물의 선까지 확보한 견고한 곳이었다. 따라서 이제와서는 黑1의 수를 黑「가」등으로 보강했어야 확실히 유망한 국세였던것이다. 패를 각오한 白2가 승부수로 통한 순간 名人의 낭패는 너무도 심각했다. 어떻게 할것인가. 黑3을 둘때

짓밟힌 右邊黑家

까지 20분이나 고심을 해야 되었지만 그야말로 억울하기 짝이없다. 생각같아서는 黑3으로「나」에 젖혀 가둬버리고 싶다. 하지만 黑「나」에는 白이 3자리로 밀어서 잡히지 않는다. 그렇다고 白4때 黑「나」로 제어서 끊으려해도 白8이면 끊을수가 없다. 이리하여 위쪽을 黑5, 7로 지키고, 白8을 허용할수밖에 없었지만 이것은 엄청난 변피가 아닐수없다. 거듭말하지만 黑1로 우변을 지켜두는것과의 차이는 말할수없이크다. 名人은 그래도 정신을가다듬고 黑9로 패를따냈다. 우변이 짓밟힌 대가를 여기서한사코 구해야되는 것이다. 黑11이 날카로웠다. 이수로 패를이으면 白「라」와「마」두곳을 당하여승산이없다. 그래서 2번패감으로 우상귀에 黑13인데 과연 白이받아 줄것인지. 12…패 【一九】

모든죽이와의 生 <128>

趙善作　禹慶熙畫

그림자놀이 ⑱

유실에서의 일은 두고두고 나를 괴롭혔다. 전화기의 신호음이 울렸을 때, 그가 깨기전에 그의 방을 나왔더라면 나는 한결 가벼운 기분이었을 것이다. 또 그 뒤 그와 섬뜩한 대화만 나누지 않았더라도 나는 그만큼 비참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그와 나누었던 이야기들 모두를 전화기의 돌발적인 신호음보다 더 저주했다. 아니, 저주한 것은 그런 사물들이 아니라 바로 내자신이었다. 나는 내 자신이 너무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할수만 있다면 나는 나를 추방해 버리고 싶었다.

그날밤 그는, 그러니까 내가 그의 방에서 나온 지 십분쯤 뒤에 내방을 찾아왔다. 도어에 노크소리가 나면서 그는 나지막한 목소리로「종희」하고 불렀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가 찾아올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나는 얼핏 했었고, 그렇더라도 그를 내 방에 들이지는 않으리라고 나는 작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가 다시「종희」하고 부르며 계속 노크했다. 그래서 노크소리와 부르는 소리가 차츰 커졌다. 이웃방에서 불평하는 소리가 들렸다. 잠시 도어 앞이 잠잠해졌는가 싶었는데 조금 있다가 그는 종업원과 함께 왔다.

「이 방 맞아?」라고 말하는 그의 목소리에 이어 남자 종업원의 목소리가「맞아요」라고 말했고, 곧 이어 열쇠를 꽂는 소리가 났다.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라고 남자 종업원이 뒤숭숭한 목소리로 말했고, 그가 다급한 목소리로 뭔가 찬찮했다.

「빨리 열기나 해, 인마」

비로소 나는 그가 무엇을 염려하는가 짐작이 갔다. 그것은 내 안위였다. 혹시 내가 자살할는지도 모른다고 그는 오해한 모양이었다. 그의 방에서 그런 짓을 하려다 실패한 내가 이번에는 자신의 방에서 그런 짓을 저지르고 있다고 그가 생각했을 수도 있었다. 열쇠는 잘맞지가 않는지, 여러개의 열쇠가 서로 부딪는 소리를 내며 차례로 열쇠 구멍을 후볐다. 문이 열리기 전에 그를 상대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 나는 짜증스러웠다.

「누구세요?」라고, 나는 마침내 힘없는 목소리를 냈다.

그의 목소리가 대답했다.

「나요. 문좀 여시오」

「왜 그러세요?」라고, 내가 짜증스런 목소리를 냈고, 그가 벌컥 화를 낸 목소리로「좀 열어요」하고 말했다. 그러나 실린더는 그때 열쇠에 의해서 찰칵하고 열렸으며, 그가 안으로 뛰어 들어왔다. 그는 먼저 방안의 등부터 켰다. 불빛이 환하게 밝혀진 다음 나는 감은 눈으로도 느낄수 있었다. 옷도 벗지 않고 침대에 반듯이 누운 자세 그대로 나는 그의 움직임을 어림했다. 그가 내 주위의 물건들을 살피는 기색이었다. 감은 눈으로도 나는 그것을 알 수 있었다. 종업원 사내가 아직도 문 앞에 서있는지 그가 그쪽을 향해 말했다.

「인마, 가. 수고했어」

수색을 마친 그가 일테면 내 안전을 확인하고 종업원을 보낸것이다. 그가 탁자옆의 의자를 끌어 당겨 앉는 소리를 냈다.

「여기 있겠소」라고, 그가 말했다.

「돌아가세요」라고 나는 말했는데, 그는 한참만에「종희가 돌아가란다고 내가 돌아갈 것 같소? 지키고 있기위해 온 거요」라고 안해도 좋을 설명까지 했다. 나는 더 이상 그를 강제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그가 내 옆에 나란히 누워 잠들고 있었던 것이다. 그가 무슨짓을 저질렀는지는 하나도 기억에 없었고, 다만 나는 그가 웃통을 벗어버린채 내 옆에 나란히 누워 잠들어있는 모습을 발견했던 것이다.

블로아 & 베다스트 하드웨어

•가정용 살림도구(부엌)
•각종 전기제품 수리및 판매
•유리 (가구, 상점용)
•각종 철물및 PAINT
•PLUMBING 제품
•기 타

번의섭
☎: 531-6183 608 Bloor St.W

오리엔탈·파레스

일요일 영업개시 오후 3 시부터
북경식 요리, 소고기 철판구이,
각종 홍콩식 요리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SHANGHAI RESTAURANT

•메뉴 : 군만두, 찐만두, 짜장면, 우동등
•Open Hours : 화~금 11 : 30AM-12PM
일요일 11 : 30AM-11PM
(공휴일도 문 엽니다)

주소 : 334 SPADINA AVE
(NEAR KENSINGTON MARKET)
☎: 864-9347

거 구 장

— 특 별 메 뉴 —

즉석불고기, 선지피 해장국,
멍게, 생선회.
한식, 중화요리, 케네디안식
※회갑, 생일파티, 동창회 피로연
영업시간 : 11A. M. —밤12시 까지
5 BETHRIDGE RD. ETOBICOKE
☎: 742-1618
곽 정 렬, 김 선 남

한 국 관

냉면·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 문
대소 200석 완비
OPEN : 오전11시~새벽1시

716 BLOOR ST. W.
☎: 532-2727

서 울 식 품

1. 싱싱한 민어회감 있읍니다.
1. 한국에서 직 수입하므로 싼 가격으로 제공합니다.

주소 :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MR. CHOI'S RESTAURANT

●일식·한식·중국식●살롱음악
월~토, 낮12시~밤1시(일요일 휴업)

2432 Eglinton Ave. E. Scarborough
☎: 759-8512
최 영 호

블루어안경

•Zeiss (Marwitz) •Rodenstock •Christian Dior •Nina Ricci •Monrad
•안경제조, 수리, 복사처방
•안과의사알선(No Appointment)
•정부 보조 안경지정영업소
•Blue Cross, Metropolitan Life Vision Care 지정 안경점
•Stock 렌즈는 당일 서비스 합니다
◆ 영업시간 : 월~목·9 : 30AM~7PM.
금·9 : 30AM~8PM 토·9 : 30AM~6PM
주소 : 629 BLOOR ST. W. TORONTO
☎: 531-2236(B) 282-2369(R)
주2회 안과의사가 직접 내방하여 검진하오니 이시간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 오후1시부터~4시30분까지
토요일 : 오후1시부터~4시30분까지

각종 한약재 도매
보약조제및 상담

●우황청심환●우황●사향●웅담
●녹용●정주사●해구편

중국의사의 진료를 원하시는 분은 미리 시간약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偉信公司 KINGS IMPORTS
428 DUNDAS ST. W. TOR.
☎: (416) 977-9818

(香港) 홍콩네 사람들

颱風 휴일

5~9월사이에 熱風등 잦아

바쁜일손 멈추고 쉴수있어 은근히 기다리기도

「시그널9」면 學校까지휴업

아침이되어 하늘이 잔뜩 찌푸려 있거나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을때 홍콩의 시민들은 곧잘 「태풍이나 안불어오나?」하고 중얼거린다. 태풍이오면 불안하다는것이 아니고 집에서 쉴수있어 좋겠다는뜻이다.

홍콩에는 1년중 대개 5월에서부터 9월사이에 크고작은 태풍들이 강한비와 함께 들이닥친다.

심할때는 수십 수백척의 소형선박들을 한꺼번에 박살내기도 하며 변두리의허술한 건물이나 판자집들을 흔적도없이 날려버린다.

다행히 요몇년동안은 큰 태풍이 오지않아 재산피해는 별로없었지만 홍콩의시민들은 지난64년의 여름을 잊지못하고있다.

하룻밤사이에 해변의 크고작은 건물들이 해일(海嘯)로 풍지박살이 됐는가 하면 거리곳곳에는 강풍에 날려 부서지고 찌그러진각종차량들이 즐비했고 부상당한 시민또한 적지않았기 때문이다.

홍콩을 향해 불어오는 태풍은 보통 필리핀 근해에서 시작돼 돌풍과 강우를 동반하며 강도(強度)를 더해간다. 홍콩天文臺는 반경4백 마일이내, 즉 동쪽으로는 臺灣, 남쪽으로는 西沙群島, 그리고 서쪽으로는 중공 雷州및海南에 태풍권이 진입했을때 시그널(信號) 1호(대비)를 발표한다.

홍콩의 모든 TV,라디오, 신문은 이를 공지하고 교육청은 각급학교에, 政府는 각급관공서에, 경찰은 관내모든기관에 알린다.

이어 시그널3호(강풍)가 발표되면 상가의문이닫히기 시작하고 시속37~66마일의 熱風 또는 暴風인 8호가 발표되면 우선 각급학교학생들이 수업을 하다말고 서둘러 귀가하게된다. 선박은 운항을 중지하고 안전한곳으로대피한다.

다음에시그널9호(열풍 또는 폭풍력증강)가 발표되면 관공서를 비롯한 모든사무실이 업무를중단하며 자동차, 전차와같은 육로교통이 올스톱된다. 이때의 풍속은 시속66마일이상.

기상학상 이이상의 시그널은 강도10의 구풍(颶風·HURRICANE)밖에없다. 아직 올해에는 태풍이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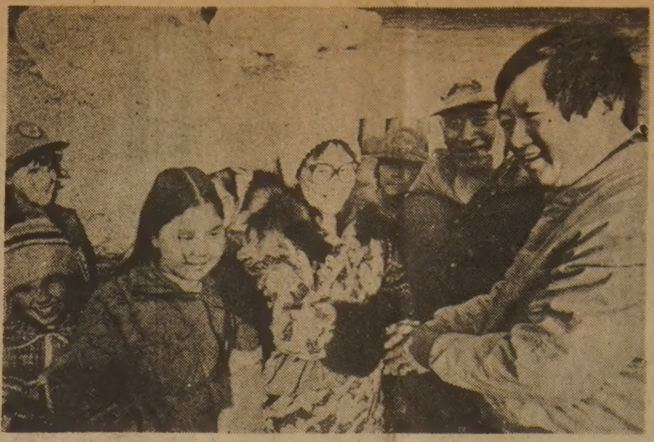
◇雨期의 데이트(자보의 홍콩素描에서)

작년에는 8월중순에 시그널 3정도의 강한바람이 두어차례 잠깐씩 지나갔는데 상인들은 방송을 듣기 바쁘게 물건을 치우고 문을 굳게 닫는가 하면 쇼핑을 나왔던 관광객들이나 외출했던 시민들이 앞다투어 귀가를 서두르는바람에 홍콩~구룡간 해저터널로 바다를 건너는데만 택시비가 2백홍콩달러,우리돈으로치면 2만6천원을 호가하기도했다.

시그널 9를되면 평상시에는 그토록 북적대던 거리의 시민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게되고 모든차량들은 큰건물옆에 바짝붙어 정차해있어 그야말로 공포의 도시를 연상케한다.

보통 15층이상의 아파트에서는 전등이 흔들릴정도로 약간씩 진동이 흔들리기도하지만 별다른 사고가 없는 것을 보면 적어도 건물을 짓고 간판을 매어달때 「날림공사」는 없는 모양이다.

【홍콩=金淸錫기자】



◇에스키모 원주민초청으로 갬블마을에 도착한 정원팔씨(右)가 부락주민의 환영을 받고있다.
【세인트 로렌스섬갬블부락 (알래스카) =로스앤젤레스支社金英錫기자찍음】

KAL스튜어디스 洪明實양 日人養父와 劇的상봉

자신의 뿌리가 한국이라고 주장하는 일본인이 한국인 「양녀」와 만났다. 지난 11일 大阪府豊中市 千里阪急호텔에서 대한항공(KAL) 스튜어디스 洪明實양(21)을 만난 大內弘基씨(48·大阪府吹田市青山臺·大內顯彰會會長) 부부는 친딸을 만난것 보다 더욱 기뻐했다.

4년동안 편지를 통해 정을 나누어왔고 가끔 한국을 방문할때 잠깐씩 만나면 사이였지만 이제 그 「양녀」가 성장해 의젓한 스튜어디스가 되어 일본을 찾아왔기 때문이다.

洪양의 동료들도 노래를 불러 이들 「부녀」의 상봉을 축하해주었다. 기쁨에 겨운 大內씨부부는 洪양에게 꽃다발과 꾸러미 선물을 주는것만으로는 미흡했던지 자기집으로 딸을 데리고가 하룻밤을 함께 보내며 가족의 정을 나누었다.

大內씨가 洪양을 만난 것은 4년전 金浦空港에서였다.

조상이 百濟 聖明王의아들 琳聖太子라고 주장하는 大內씨는 이사실을 규명하기위해 자주 한국을 방문했는데 4년전 金浦에서 여고생이었던 洪양에게 우연히 말한마디를 건넨것이 인연이 돼 편지를 교환하게 됐고 다시 방한했을때는 洪양의 집을 방문,가족들과도 친교를 갖게됐다.

자녀가 없는 大內씨는 洪양을 친딸보다 더욱 사랑했고 洪양도 일본아버지 일본어머니라 부르며 따랐다.

이런 인연으로 일본어를 배우게 된 洪양은 금년초 대한항공에 입사하게 됐고 마침내 꿈에 그리던 일본행을 실현,재상봉을 하게된 것이다.

「養父母」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은 洪양은 12일 大阪공항을 출발하는 KAL기에 오르며 『일본땅에 찾아와 만나게 돼 정말 기뻤다』고말했다.

大內씨는 『자랑스런모습으로 성장한 딸을 보니 감개무량하다. 가능하다면 짜 인연을 맺고싶다』고 서운해했다. 【大阪支社】

大內씨 뿌리찾으러 訪韓 인연

편지로 4년 뜨거운情 나눠

"자랑스런 모습 꼭 친딸같다"

◇한국인 「養女」 洪明實양(21·KAL스튜어디스)과 相逢한 大內씨부부. 【大阪支社】

알래스카에 심은 '한국仁術'

앵커리지 정원팔씨 忍耐12년…뿌리내려

영하45도 혹한…개썰매로往診

날씨나빠 발묶일땐 無線진료

원주민「6월祝祭」엔 꼭 報恩의 초대받고

【세인트 로렌스섬 갬블부락(알래스카)=로스앤젤레스支社 金英錫기자】얼어붙은 북극권 베링해협의 외딴섬 에스키모부락에서 한인의사의 인술에 보답하고자 마련된 모임은 시베리아 강풍이라도 녹일것 같았다.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시에 거주하는 교포의사 정원팔씨(47)는 지난6월8일 세인트 로렌스섬 갬블마을의 에스키모원주민들로부터 보은의 초대를받아 이곳에 왔다.

북위63도 서경1백70도, 알래스카의 베링해 북쪽에 위치한 이마을은 70여세대에 인구 4백50명의 에스키모거주지.

소련땅이 불과 64㎞앞에 아른거린다. 정박사는 지난69년 10월부터 1년7개월동안 이곳에서 약2만명의 에스키모 원주민을 치료해 줬다.

뉴욕과 필라델피아에서 외과공부를 마친 정박사는 69년가을 출국통고를 앞두고 비영주권자가 개업할수 있는 알래스카에정착했다.

알래스카주 서부의 놈병원에 부임한 정박사는 지구의 최북단도시 포인트베로시 에서부터 베링해안을 끼고 산재한 16개 에스키모부락을 맡았다.

이지역은 한반도 전체면적의 1.5배가 넘게 광활하다.

여름에는 소형보트나 소형비행기로, 겨울에는 개썰매로 영하45도의 혹한속을 누볐다.

기후가 나쁠때는 매일 1시간씩 각부락에 파견된 원주민 간호보조원에게 무전 순시진료를 통해 처방을 내리기도했다.

그는 『에스키모 사람은 우리네와 흡사한 생김새에 무표정하고 순하디순한 착한 천성으로 마치 고향사람을 대하는 느낌이었다』고 말한다.

악천후로 인해 생명이 위태한 왕진도 몇번 있었다. 70년 겨울 놈시 1백60㎞ 남쪽 샤클릭 부락에서 한 에스키모인의 양다리가 절단되어 과다출혈로 생명이 위독하다는 급전이 들어왔다.

빙판 양편에 스노모빌을 두줄로 세우고 헤드라이트를 켜 임시활주로를만들고 우선 무선지시를 내리고 현지로 출발했다. 정박사는 간호원 1명과함께 경비행기를 이용,임시활주로에 위험천만한 비상착륙을 감행,환자의목숨을구했다.

71년 5월10일 그가 임기를 마치고 놈시를 떠날때는 3백여명의 원주민이 나와서 석별을 아쉬워했다.

한 이방인의 인술을 못 잊어하는 에스키모인들은 매년 6월의 정기축제때면 앵커리지에 개업하고 있는 정박사를 잊지않고 초대한다.

정박사를 맞은 갬블마을은 온통 축제무드였다. 풀한포기 없는 불모지대의 길이 5백m의 간이활주로에 몰려나온 주민들은 『이곰시까나한틀 (고맙습니다)』 『까욱시넬크 (안녕하십니까)』를 연발하며 은인을 반겼다.

『물개가죽 몇이뛰기』 『고유민속춤』으로 밤이의 진발을 축긴 정박사는 하루만에 이섬을 떴다.

정박사가 떠나던날 에스키모인들은 세스나기가 아물거리며 구름속으로 사라질때까지 손을흔들어댔다.

千一夜話 生物의 世界

표범등은 상대 괴롭혀서 性愛 불러 일으켜

사랑스러워 무의식으로한 애무가 상대방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경우를 흔히 체험했을 것이다. 인간사회에선 痛覺刺戟이 性的으로 돼감화하는 경향을 病的현상이라 규정짓고 있지만 동물 세계에선, 특히 척추동물은 異性에 대한 공격적 행위가 성행동 패턴의 불가결한 일부로 엄연히 정상이다. 그실예로 도마뱀의 일종인 펜스 리자드와 아메리카 카메레온을 들수있다. 이 두가지동물은 수놈이 테리토리 즉 생활영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테리토리안으로 침입자가 있을 경우 즉시 공격한다. 처음엔 성난표정이나 소리로 위협하나 퇴각하지 않고 이에 대항하는 경우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진다. 그러나 문제의 침입자가 발정기에 있는 암놈일 경우, 초전박살의 기세로 덤벼들던 수놈은 차츰 싸움에서 사랑으로 태도를 바꿔간다.

「한손엔 칼, 한손엔 사랑」이랄까.

상반된 무기로 접근하는 수놈에 암놈이 사랑을 선택하면 암놈은 전방으로 향했던 머리를 옆으로 구부려 성적준비가 바야흐로 진행되고 있음을 표시한다. 그러면 수놈은 암놈의 머리를 愛咬하여 이를 수락하고 騎乘位로 성기를 접근시키는데 만약 이때 암컷이 섹스를 거부하고 도망치려면 지금까지 잡고있던 뒷덜미를 놓고 열두리를 사정없이 물어뜯는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런 가학행위에 암놈은 더욱 흥분, 자진해서 교미에 들어간다는 사실이다.

「사랑과 공격」의 양면성은 발정한 고양이에서도 흔히 관찰되는 凡常한 섹스 패턴이다. 은밀하게 섹스를 하고선 기성을 지르며 분만하는 인간과 달리 야단스럽게 교미하고 그 대신 소리없이 새끼를 낳는 고양이의 메이크 러브를 처음 보는 사람은 그것이 암수의 대결인지 애정행위인지 얼핏 분간하기가 쉽지않다. 더구나 교미에 진입할 때 수놈은 피부가 팔뚝하도록 암놈의 등뒤를 깨물어 mount하는데 이같은 잔혹한 동작은 마치 프로레슬러들이 유혈로 관중의 흥분을 더함과 같이 그런 행패를 당한 암놈을 흥분시켜, 前身을 낮게하고 히프를 들어올려 교미자세를 취하게함과 동시에 자기신도 자극받아 저절로 페니스가 발기한다. 대체로 사자 표범등 고양이科동물의 섹스 패턴은 이런식이다. 다만 사자와 고양이가 다른 점은 섹스 初期이 아니라 사정하는순간에 사자는 암놈을 물어뜯는다.

수놈도 교미직전 암놈을 강하게 咬傷하고 수놈도 가끔 암말의 어깨를 물어뜯으며 성교자세를 취하는데 강치(물개 비슷한 서각류동물)만은 반대로 섹스직전 암놈이 수놈을 물고늘어져 이채롭다. 어떻게보면 수놈의 폭력에 순종하는 것이라 생각되겠지만 포드와 비치가 명키에서 관찰한 바로는 섹스의 서론에서 수놈이 암놈을 사정없이 물어뜯는 만행을 보일때 이에 대항하는自救策을 행사하지않고 오히려 행복한 표정을 짓는것은 이를 포유동물에서 이성에 대한 공격적행동이 성적자극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귀여운 아기의 볼에 자꾸 잇자국을 내는것도 일종의 애교행위에 속한다고 볼때 동물의 이같은 번난사랑을 이해하는것이 별로 어렵진 않을것이다.

郭大熙 〈비뇨기과전문의·醫博〉

記者의 눈

"移民온걸 후회한다"

『모국엘 어떻게 돌아가단 말인가. 가족이나 우리를 밀수꾼으로 보아 마음 아픈데…』

『차라리 미국으로 이민온게 후회된다. 2세교육이 염려스러워 다른 나라로 이주할까보다』

『70년대 한인사회의 새로운 자각으로 성숙시킬 계기다』

이것은 로스앤젤레스한인회장의 외화유출사건, LA타임즈紙의 한국인 갱단기사등의 잇단 충격에 위축된 교포들의 반응이다.

재미교포사회에서는 겹친 불명예에 대한 울분이 터져나옴과 함께 이번 사건을 누적된 부조리를 일소하는 계기로 삼자는 自省의 소리도 울려 퍼지고 있다.

한때 교포들의 피해는 주로 흑인이나 멕시코인으로부터의 폭력이나 언어장벽,차별대우등에 의한 것이었지만 교포사회가 더욱 커지면서는 어느덧 청소년들의 편싸움,무장강도,살인등의 폭력이 큰 골칫거리가 된 터였다.

이런 판국에 먼저 한인사회의 저명인사를 두목으로 4백여명의 조직을 가진 한인갱단이 동족들을 협박, 금품을 갈취하고 있다는 미국신문의 보도가 있었으니 파장이 돈 아니든 교포 위신을 크게 손상시킨 사실이다.

물론 두가지 사건은 이민성장의 과정에서 일어날수 있는 부작용이라고 생각할수도있다.

그러나 이제 한국의 이민 역사도 80년. 이미 이룩한 경제자립과 사회진출에 걸맞는 명예로운 한인사회를 이루려는 교포들에게는 매우 가슴아픈 일이다.

교포들은 지금을 10년에 한번맞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한인회장의 구명운동 움직임도 보이고 있으나 대다수는 올바른 법의 심판을 받고 교포사회의 명예를 되살리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며 한인회 주도권을 둘러싼 암투등 오랜 부조리를 일소하자는 결의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다.

정부가 해외로의 문호를 개방함으로써 앞으로의 해외진출은 크게 증가할 것이다. 이번 사건이 정의로운 교포사회를 다지는 정비작업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교포사회의 발전만이 교포의 조국애를 키워줄 바탕이 될것이다. 【金奭根기자·外信部】

메아리

地球는 하나뿐

생명체의 환경인 지구는 지금 어떤 형편인가. 전인류의 4분의1은 비교적 풍요롭게 살고 있지만 나머지는 때때로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세계은행이 「절대적빈곤」 상태로 규정한 사람이 8억에 달하며 12억의 인류는 안전한 물조차 구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허덕이는 실정이라고 한다.

자연환경의 가해자인 인간은 오히려 공해의 피해자가 되어 앓고 있는 지경이 되었다. 온세계의 축복을 받으며 우주여행을 성공하고돌아온 콜럼비아호에선 앞으로 「우주공해우주」에서 약품을 생산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공해가 두려워 지구인이 지구를 탈출해야 할 전망이 낳아오지 않을까 두렵기조차하다.

오늘은 유엔이 정한 세계환경의 날. 「하나밖에 없는 지구」라는 절박한 구호를 내걸고 72년 스톡홀름에서 유엔인간환경회의가 열렸다. 여기서 6월5일을 세계환경의 날로 지정했다.

이 회의가 열리게 된 하나의 동기는 70년대초 미국인구학자 미보로우의 놀라운 경고였다. 그는 「현재와 같이 자원을 쓰고 인구가 늘어가고 오염된다면 100년 이내에 인류는 자기 정지상태에 빠질지 모른다」고 충격적인보고서를 내놓았다.

인간에 의한 자연파괴는 놀랍다. 전세계 산소량의 40%를 생산한다는 아마존강 유역의 밀림이 폐허화 되어가고 있다. 산업국가의 강물은 썩어 죽은 강이 되어 버렸다.

남의 걱정만이 아니라 우리환경도 「중증환자」로 진단이 내려진지 오래다. 그래서 자연보호운동이 벌어졌고 강과 바다를 살리자는 범국민적 움직임이 높다.

요즘처럼 맹명한 하늘이 야속할때는 더없을것같다. 그렇지만 이 맹명한 하늘도 결코 맑지가 않다. 매연으로 더럽혀진 무연한 하늘이다. 그하늘에서 비소식이 감감하니 농민의 주름살이 펴지질 못한다.

우리나라 담수총 저량은 풍년에 버티고 하천으로 흐르는 물은 2백40억톤이다. 그나마 강물의 일부는 오염이 심해 공업용으로도 쓰기 어려운 지경이 되었다.

당국은 공해를 줄이려 우선 서울의 차량부터 저유황유를 사용케 하고 한강정화에 나섰다. 가뭄에 단비같은 반가운 소식이다. 공해의 실타래를 하루 빨리 고쳐 푸른환경을 이룩해야 하겠다.

환경대책에 우리 모두가 서둘러야겠다. 「내일이면 늦으리」.

533 2361

바둑

趙治勳시대 열린다

本因坊 도전권 쟁취로 본 展望

힘세고 끈질기며 찬스에 強한 실력

恐怖의 대상…올들어 12승1무1패

일본기계에 「趙治勳시대」가 활짝 열릴 것 같다. 일본기사들과 바둑팬들은 趙治勳名人(24)의 本因坊戰 도전권쟁취소식을 전해듣고 하나같이 趙治勳名人의 시대가 멀지 않았음을 내다 보았다.

◇吳淸源 ◇가 또 ◇사까다 ◇趙治勳 ◇다께미야 ◇이시다 ◇林海峰

이들에 따르면 趙治勳시대 到來를 전망하는 이유로는 ①올들어 12승1무1패의 경이적인 성적으로 두었다하면 거의 이기고 있다. ②本因坊戰 본선리그 전서도 林海峰, 가또(加藤正夫)天元, 사까다(坂田榮男) 9단등 강자들을 모조리 때려 누이고 7연승의 호기록으로 본선의 관문을 가볍게 뚫었다. ③입마전 入神경지인 9단으로승단, 승단전때문에 정력을 더이상 소모하지 않아도 된다. ④두텁한 棋風이 없어진 과거의 단점을 극복, 힘이 세고 끈질기며 찬스에 강한 현실적인 「趙治勳流」를 확립, 모든 기사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다. ⑤현재 일본기계의 7개 타이틀중 棋聖·十段·王座·碁聖·名人·本因坊·天元 … 가또(加藤正夫)天元 다께미야(武宮正樹)本因坊등에서 가장 나이가 어려 장래성이 있다. ⑥에서는 타이틀을 따지 못했거나 본선에 진출 …

하지못해 많은 바둑을 두느라 신경을 많이, 소모했는 메 비해 앞으로 本因坊位를 획득한 경우 1번에 몇판만 전력투구를 하면 된다는 점을 들고 있다.

최근 일본기사들은 하나같이 趙治勳名人파의 대국을 꺼리고 있다. 拿은 바둑도 어렵다보면 趙治勳名人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本因坊 秀哉名人이 은퇴한이후 일본기계는 중국서 건너온 吳淸源에게 완전히 점령당하다시피 되었다. 吳淸源은 일본의 내노라하는 기사들과 十番棋를 두어 거의 모두의 선수를 先相先으로고쳐 놓을 정도로 엄청난 棋力을 과시했다. 한시대를 풍미했던 吳淸源이었지만 기라성같은 인물의 알파한 전제와 견제 앞에서 인 해 중요 타이틀은 한번도 쟁취하지 못했다.

吳淸源에 이어 다까가와(高川格·本因坊9기連覇), 하시모토(橋本宇太郎)등이 무작을 보였으나 한城(타이틀)의 城主로 머무른채 그의 시대를 펼치진못했다.

吳淸源시대의 뒤를 이은것이 사까다. 「면도날」로 불린 사까다는 通算61개의 타이틀을 따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우면서 한참동안 전성시대를 구가했다. 사까다의 통일천하 시대를 무너뜨린것이 중국인 林海峰. 그러나 林의 시대는 별로 길지 못했으며 컴퓨터 이시다(石田芳夫)에게 바톤을 넘겨 주었다.

이때부터 일본기계에 春秋戰國시대처럼 군웅할거의 시대가 펼쳐졌다. 이시다에 이어 가또, 오오다께, 다께미야가 일본기계를 나눠갖고 있는 것이다. 「피곤후지사와·슈꼬」는 「1년에 4판만 이기면 1억엔과 명예를 지킬수있다」고 호언하면서 棋聖의 城主로만 自足하고 있다. 【東大韓新報本部】

慶州李氏 宗親會 開催公告

宗親門中 여러분에게

그 間 安寧하셨읍니까. 特히 外國生活에서 相互横的連絡할 길이 없어 일일이 찝지못하고 우선 紙面을 빌어 人事드립니다.

저희들은 一家몇몇이 모여 約 一年前부터 慶州李氏親睦會라는 名稱下에재미있게 모임을 가지면서 宗親間의 友情을 敦篤히 해오든中 금년부터 正式으로 宗親會로서 發足하게 되었읍니다.

母國에서 보든 宗親會와는 달리 外國에서 느끼는 그 体質의 特異性과 切実한 友情을 모이시는 분 모두가 体驗하고 이런 모임을 아직 모르고 계신 門中 여러분과 자리를 같이하면 더욱보람을 느낄 것으로 미루어 아래와 같은 모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宗親會란 簡單히 定義하여 한분할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은 긍지와 名譽로움을 同時에 느끼는 一家의 모임입니다. 그러나 各個人의 生覺에 따라서는 宗親會란 名稱 또는 그 語彙自体를 固陋한 느낌으로 一笑에 부칠수도 있고 奔走하게 도라가는 移民生活에서 그實存価値조차 疑訝할 수도있읍니다마는 저희들이 一年間 모임을 거듭함에 따라 血肉之間에서 만이 느끼는 愛情과 信頼感으로 두터워가는 親分을 經驗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이 有益하고 즐거운 모임을 자랑삼아 他姓門中 여러분들에게까지 우리와 같은 宗親會의 發相을 勸告促求해보기도 했읍니다.

또한 같은 民族끼리 모여사는 母國에서와 달리 異民族사이에 끼어 살게된 우리 移民生活에서는 외로움을 달래는 親分의 交流도 必要합니다마는 그보다 우리는 이곳에서 살아가는데 必要한 叡智의 生活情報 또한 重要한 것이라 生覺됩니다.

우리生活에서 親分의 交流와 生活情報가 우리 移民生活에서 必要하다며는 남남끼리 모이는 어느 团休가 이 血統愛情의 흉허물 없는 宗親會의 그것을 따를 수 있겠읍니까.

願컨대 子女들에게는 올바른 唯一한 "뿌리"를 自覺케하고,夫人들은 外國에서 모처럼의 一家和睦을 누리기 爲하여 이 機會에 즐거운 一家团欒의 一員이 되실 줄 믿고 다같이 相逢의 기쁨을 苦待하고 있읍니다.

感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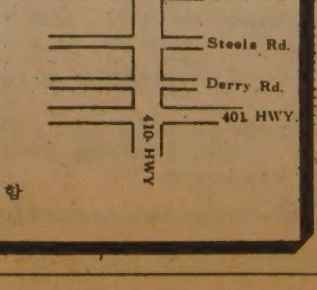
1981年 6月 日

李	勝榮	828-6765		
	鍾勛	463-4846	相昊	451-4450
	基雨	929-0230	相薫	638-1744
	正雨	278-2814	炱龍	789-3846
	柄洙	366-0116	相男	1-878-0857
	時雨	742-3624	相律	638-13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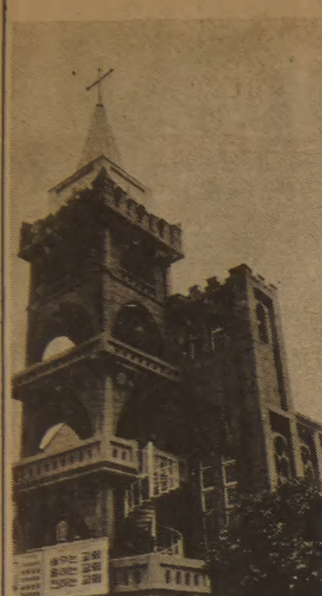
(行列順) 올림

— 다 음 —

1. 日 時: 1981年七月十八日(土) 午後一時三十分
1. 場 所: Heart Lake Conservation Area
1. 中 食: 各者持參
1. 우천일 때는 7월25일(토) 같은 장소, 시간으로 연기함



宗教



근심은 罪값으로 생깁니다

日曜日 아침을 위한 말씀

金 昌 仁 <忠峴교회목사>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부딪치는 근심에 대하여 생각해보고 이근심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 다함께 은혜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 셀 수도 없이 많은 근심들이 있읍니다. 질병의 근심—병이 들면 환자는 물론이거니와 가족 식구까지도 근심에 빠집니다. 사업에 실패하면 경영자는 물론, 그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근심의 포로가 됩니다.

사람의 실수와 실패때문에 생기는 근심외에도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수없는 근심도 있읍니다. 대표적인 것이 천재지변으로 인한 근심과 6·25사변과 같은 전쟁때문에 생기는 근심입니다.

근심이 생기는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읍니다.

죄값으로 근심이 생깁니다.

천지만물은 하나님의 명령대로질서있게 움직이는데도 만물의 영장인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구약의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갔다가 풍랑을 만나 자기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손해를 주었읍니다. 이스라엘 사람 아간은 자기 한사람의 욕심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 자기민족에게 실패와 근심을 안겨주었읍니다.

미련의 결과로 근심이 생깁니다.

미련한 사람은 꼭 들어야 할말은 듣지 아니하고 듣지 않아야 할말은 듣고 행동하다가 망신을 당하고 실패하고 근심에 싸이게 됩니다.

게으름의 결과로 근심이 생깁니다. 만사에 미리 준비가 없는 사람은 결국 근심을 당하게 됩니다. 성도가 기름을준비하지 못하면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돌이킬수없는 영원한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31년전 6·25사변도 우리들이 정신차려 준비하지 못하고 호언장담하며 교만하고 게을렀기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었읍니다. 인생이 약하므로 근심이 생깁니다.

인생은 부서질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인생은 몸도, 마음도, 믿음도 약하기때문에 근심에 싸이게 되는 겁니다. 방해자 때문에 근심이 생깁니다.

세상에는 방해군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선한 일을 하려고 할때에는 더욱 많은 방해군들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악한사람들 때문에 우리에게는 근심이 엄습해오는 것입니다.

근심은 지혜롭게 예방해야 합니다. 질병으로 고생하지않으려면 사전에 병에 걸리지않도록 예방해야 하는 것처럼 근심도 사전에 예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근심을 예방하는 지혜로는 첫째 겸손을들수 있읍니다.

교만한 고집, 더러운 욕심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근심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식은 부모님의 말씀을, 국민은 나라의 법률을, 학생은 선생님의 말씀을, 인생은 하나님의 명령을 겸손히 순종할 때 근심이 생기지 않게 됩니다.

조심스럽고 겸손한 생활태도로 災殃 예방을

둘째 충성을 해야합니다. 맡은 일에 감사하면서 충성할 때에 근심이 생기지 않습니다. 학생은 공부하는 일에, 교회 직분을 맡은 자는 직분자로서 충성하면 근심이 생기지 않는것입니다.

세째 조심해야 합니다. 말에 조심하고 행동에 조심하고 생각에 조심이 있는 사람은 근심되는 일을 만나지 아니합니다. 죄값으로 생긴 근심을 해결하기위해서는 회개하여야 합니다.

죄는 숨겨두면 냄새를 피우고, 죄를 숨겨두면 자신의 마음과 가정에 지옥불이 붙습니다.

서원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근심이 해결되면 하나님 앞에 헌신할것을 약속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근심의 원인이 해결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성공과 승리로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근심을 바꾸어 대신 구원을 주십니다. 구원은『건져낸다』는 뜻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근심에서 건져내어 기쁨과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또 치료해 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로한다는 말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신다는 뜻입니다. 개인적으로 잃어버렸던 건강, 물질, 명예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또 국가적으로 잃어버린 땅, 잃어버린 백성을 복음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켜 주실뿐 아니라 육적으로, 영적으로 갑절이나 넉넉히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금년에 우리 백성에게 풍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험하고 인생은 약하므로 우리는 많은 근심 속에서 살고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값때문에, 미련하기 때문에, 게으르기 때문에 근심을 당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범사에 겸손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고, 감사함으로 맡은 일에 충성하고, 매사에 조심하여 근심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여야 합니다. 근심이 생겨도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악마와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고, 모든 근심을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하나님께서 권능과 사랑으로 해결해 주시는 복을 받아 구원의 복과, 치료의 복과, 위로의 복과, 풍년의 복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文豪의 名言

호라티우스 <前65~前8>

로마의詩人, 南이탈리아의 베느시아서 났다. 로마서 修學후 아테네에 留學, 로마에 돌아와 下級公務員이됨. 이때부터 詩作을 시작, 당대 一流의 詩人 베르길리우스의 친구가됐다.

잠시만 소홀해도 惡이 몸에 밴다

結局가서 자기자신을 스스로 결러보도록하라. 惡의 種子가 生來的으로 그대몸에 뿌려져있는지, 혹은 나쁜습성에물들어 惡이 몸에 배었는지, 어느쪽인지 결점은 있는게 분명하다. 잠시만 손질을 소홀히하면, 불태워 없애지않으면 안될만큼 雜草가 마음속에 무성할것이다.

× × ×

베르길리우스와 함께 아우구스투스 皇帝治世의 대표적詩人인 호라티우스(HORATIUS)는 解放奴隸의 아들로 태어났다. 이미 재산을 거의없애버린 부친은 그를로마로데리고가 무슨수를썼던지 최고의 교육을 받게했고 20세땐 아테네에 유학까지 시켰다. 그후 로마로돌아와 하급공무원이 되는데 부친이 세상을뜨고, 그가 남긴 보잘것없는농장마저 몰수당하자 빈곤과 失意속에 詩作을 시작했다. 몇년후 그는 당시 이름난 詩人이던 베르길리우스와 친교를 맺어 그의 주선으로 文藝의 보호자이던 大貴族 마이케네스의 文學서클에 들어, 아우구스투스의 知遇를 얻게된다. 이래서 그는 詩作에 專念할수있는 좋은 환경을 맞는데, 이후 그의 生涯를 오직 詩에만 바쳤다. 호라티우스는「敍事詩集」4卷으로 스스로도 자랑스레 선언한것처럼 敍情詩人으로서의 천분을 발휘했는데, 諷刺詩에 있어서도 제1급의 詩人이었다. 輕妙洒脫한 警句로 가득한 그의 諷刺詩가 후세에끼친 영향은 그의 敍情詩에 결코 뒤지지 않았다한다. 바로 이점을 反映한 그의「詩論」은 라틴文學에 있어 大作家에의해 쓰여진 유일의 문학론이다.

無認可신학교 어떻게되나

改新教대표들 對策협의회 가져

교역자의 資質저하·教派分裂을 조장

1教壇에 1학교등 制度的장치 시급

한국개신교의 급성장에따라「低質教役者양산」이라는 치부를 드러내고있는 무인가신학 [illegible] 시작한 기회에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는 완전 정비해야한다」는 의견과『교회일꾼은 교회가 양성할 문제이므로 인가여부가 관계되지않는다』는 의견으로 엇갈려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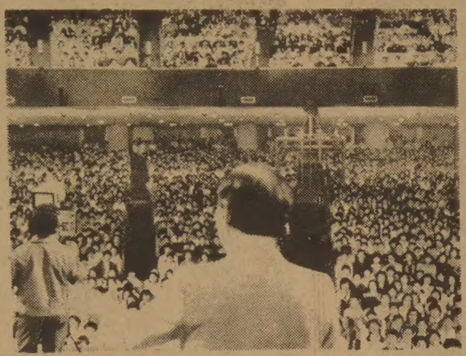
그러나 학계의견은 문교부의 대학설치기준과 교단의 신학교 육성방안 사이에 적정선을 찾아야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책협의회에서 해결책이 나와야한다고 집약돼있다.

무인가 신학교가 난립됨으로써 교역자의 자질을 저하시키고 교파분열의 온상이 되고있기 때문에 정비는 필수적이라는게 지배적 의견이다.

감리교신학대 朴奉培학장은『종교인스스로 해결해나갈 문제를 정부가 정비하기에 이른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면서 일부 실추된 목회자의 권위회복과 사이비목사의 예방을위해서도 정비가 타당하며 부족한 교역자는 기존신학대학정원을 대폭 증원함으로써 해결할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존신학대학안에 교역자양성소와 계절제 재교육기관을 신설하여 무인가신학교가 다시 난립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고있다.

장로회 신학대학 羅采雲교수는 교계사정에 알맞는 적정선을 마련해야한다』 밝히고『그러나 기독교신도 20만명에 비 [illegible] 는 종교단체 스스로 수술하기는 힘든 일이므로 정부가 종교 [illegible]



◇무인가신학교 난립으로 저질교역자가 배출되는것을 막아야한다는것이 전체기독교계의 바람이다. (이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없음)

"大學기준과 教界사정 감안한 해결 바람직

오히려 종교에대한 공헌이 될것이라고 말했다.

개신교 19개교단대표들로 구성된 대책협의회 (공동회장 朴致淳 池元祥 吳康錫)는 18일 하오6시 새문안교회에서 신학교대책 특별기도회를 개최하고 각계에 보내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신학교문제는 한국교회의 지속적인 발전은 물론 국내외선교에 직결되는 중대한 일이라고 전제한 이 건의문은 정비문제로 물의를 빚은 신학교는 건전한 기성교단에는 없으며 또 한 부조리가 있어서도 안되기 때문에 1교단 1학교를 허가해줄것을 요망했다.

당면한 무인가신학교 문제를 타개하기위해 衆智를 모은 이날 기도회는『역사와 전통있는 한국교회는 사이비종파와 거짓 선지자들의 무리를 몰아내야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또 한 이들은 신학교는 옛 선지학교와 마찬가지이므로 교역자양성문제는 일반교육과 구분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있다. 교계일부에서는 교역자양성을 위해 교단마다 교회대학 (처치컬리지)을 설치하는게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한다.

그러나 교회가 선교·교육 두가지 구실을 갖는데비해 신학교는 교역자양성만이 임무가 아니라는 사실을 감안, 기독교대책협의회는 당국에 건의문을내고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것인가?

교계에서도『정부가 수술을 [illegible]

서울신학대학 李相勳 학장대리는『정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단대표자들이 정부기준 [illegible] 예해서 1개신학교씩 증설해준다는식의 구획선을 긋는 착상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자유라는 측면에서 미온적인 태도를 취할것이 아니라 적법한 기준을 세워 강행하는 것이 ── 는데 그치지말고 적정방안을스스로 세워줄것을 전교계는 기대하고있다.

나의 信仰

金玆林<극작가>

영혼이 잠에서 깨어나면서 감사와평안이 온몸에 충만

[illegible]

「죄의 고백과 새로운책임」

韓獨교회協, 統一문제등 토의

두해에 한번 번갈아 개최되고있는 韓·獨교회협의회가 지난 8~10일까지 서울아카데미하우스에서「죄의 고백과 새로운 책임」이라는 주제아래 열려 양국교회의 공동관심사를 토의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통일문제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고 在獨한국인 근로자실태가 발표돼 관심을 모았다.

두나라 교회는 공동성명을 통해『[illegible]가 간단하고 억눌린 민중과 아픔을 함께나누지못하고 우리자신의 이익과 안일에만 급급해왔음』을 고백했고 양국의 가장 중요관심사는 분단된 조국의 통일임을 명백히했다.

양국의 분단은 역사적으로 각기 다른세력과 발전과정에 의해 형성되었다고밝힌 이 성명은 자유와 정의가 보장된 평화스러운 통일을바라는 민중의 열망속에서 양국교회에 주어진 책임을느끼며 교회가 이에 참여해야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두나라교회는 한국기독교교회 협의회에 통일문제를 연구해가기위한 위원회나 기구를 설치할것과 독일교회는 이 기구를 통해 재독한인들의 평화통일논의를 지원할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제4차 한독교회협의회가 아카데미하우스에서 「죄의고백과 새로운책임」을 주제로열려 관심을 모았다.

소식

天眞菴서 경축행사

한국천주교회 창립기념일 제1회 경축행사가 24일상오11시 천주교발상지 天眞菴(경기도 廣州郡 退村面 牛山里)에서 거행된다.

주한 교황청대사 루치아노·안젤로니 大主教, 前서울대교구장 盧基南대주교, 水原교구장 金南洙주교가 주례할 경축미사에 이어 이날행사는 天眞菴 갈멜여자수도원 기공식, 한국신학연구소 준공식, 한국천주교회 기원사 관계자료 전시회등을 겸하게 된다.

가톨릭 월요강좌

가톨릭여학생관 (서울中區忠武路2가11의2)의 3백46회 월요강좌가 22일 하오7시 개최된다.

강사는 가톨릭신학대교수인 鄭義采神父. 주제는「오늘에 있어서의 비인간화문제」.

崔弘吉神父 수상집

大邱가톨릭 문화관장 崔弘吉神父의 수상집「追憶은 未來에 있다」가 출간되었다.

崔신부가 VOX (소리) 에 이어 두번째로 내놓은 이 저서는 교구주보와 가톨릭신문 대학의학보 교회내 젊은이 단체의 會誌등에 발표한 작품을 한데 묶은 것이다.

에바다선교단 초청

대한예수교 장로회 水色교회 (당회장 金鍾鎬목사)는 21일 하오7시30분 에바다선교단을 초청, 찬양예배를 드린다. 이날예배는·男선교회 주최로 진행된다.

조계종 5部長임명

불교조계종 鄭草宇총무원장은 총무 朴鍾夏 교무 釋無比 재무 [illegible] 사회 方法融 규정 金正樂스님등 5개부장을 새로 임명했다.

이같은 인사는 지난67회 중앙종회에서 총무원기구가 작년10월이전으로 환원됨에 따라 취해진것이다.

天台宗 통일大法會

불교天台宗신도회가 주최하는 국토수호및 조국통일기원 대법회가 19일상오10시 울릉도 도동항에서 1천여신도들이 참가한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법회에 참석한 종단간부들은 이곳 경비당국에 함상무비 2백36벌을 마련, 노고를 위로했다.

「教會미래상」세미나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는「2천년대를 맞는 한국교회의미래상」을 주제로 22일하오1시~4시사이 코리아나호텔 22층에서 세미나를개최한다.

長神大 李永獻교수 (역사적 측면에서 본 한국교회) 延世大 李基錫교수 (한국교회가 처해있는국제정세)의 강연에 이어 閔庚培·李載禎·李相勳박사등이 토의에 참가한다.

6·25상기 大集會

한국기독교 부흥협의회는 22~26일까지 전국15개교회에서「복음으로 조국통일하자」는 주제아래 민족복음화 6·25상기대집회를 갖는다.

또 세계기독교복음선교회는 24~25일 이틀간 하오9시30분에 새문안교회에서 6·25상기 특별철야기도회를 개최한다.

共產主義비판세미나

한국기독교 선교협의회 (회장 俞尙根)는 23일상오10시30분부터 공산주의사상 비판세미나를 明知大강당에서 갖는다.

「공산주의의 사상적도전과 대책」(尹元求교수)「공산주의의 새전략과 한국교회」(洪志英박사)를 주제로 강연이 있은뒤 토론을 벌이게된다.

흔들리는 宗主國 地位 스포츠現住所

태권도 <下>

國家觀부족 조국얼굴에 먹칠도

현지公館의 적극적協力 아쉬워

숱한世界有名人士 태권도통해 한국理解

美國의 저명언론인 잭·앤더슨, 공화당 테드·스티븐스, 민주당 린턴·버덕 의원, 세계각국의 전현직 고위인사들인 이들은 모두 한국인 태권도사범의 제자들이다. 세계의 저명인가운데 태권도를 수련한 사람들은 결코 이들뿐이 아니다.

수많은 영향력있는 인사들이 태권도를통해 한국을 이해하게됐고 한국입장을 지지해주었다. 그러나 해외에 진출해있는 사범들은 주재공관과 긴밀한 유대가 부족하다. 주재공관으로부터 협조를 받을때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고 아쉬워하는 사범들도 있다. 때로는 현지의 사범역할이 큰힘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잊는경우가 종종 있다는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국가관이부족한 사범도 있다. 사명감 [illegible]

힘·技術겸비해 外國추월 대비해야

[illegible]

대응책가운데 가장 효과적인것으로는 이런 지역에 시범단을 파견시키는 것이다. 종주국 시범단이 이지역에서 태권도와 태권도인에 대한 이미지를 재인식시키고 동시에 말썽을 부린 장본인을 설득하거나 그렇지못한 경우 무력하게 만들수도 있다.

日本은 64년 올림픽을개최하기전 유도를 오륜종목으로 채택시키기위해 수백만달러를 투자해 유도시범단을 해외각국에 보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태권도 순회시범단은 태권도가 올림픽에 채택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할뿐아니라 방국가사범들을 무력케할것이다.

이와 병행해 전세계 태권도의 메카인 국기원을보다 확충, 개선해야한다는 소리도 높다. 서울 江南區 驛三洞山76 2천5백평의 대지에 건평 1천2백76평의 국기원은 전세계 태권도의 본산이라고 말하기에는 사실상불가능하다. 정부의 관심이 아쉬울때가 많다.

태권도인들 스스로가 노력해야할것도 많다. [illegible]

해서는 재정이 뒤따라야한다. 수익단체가 아닌 태권도협회로서는 자체힘만으로 이러한것들을 해결하기 [illegible]

[illegible] 【金仁昌기자】

海外파견師範 再教育 필요하다

뉴질랜드 멀둔수상, 캐나다 가리우끼 국무장관, 필리핀 엔리테국무, 요르단 허세인 황태자, 멕시코 포틸로 대통령, 스페인 카를로스 국왕, 아이보리코스트 기랑두 駐캐나다대사, 을 망각하고 조국에 악영향을 끼치는행동을 서슴지 않는 태권도지도자도 종종 발견되곤했다. 이같은 부작용을 없애기위해서는 해외파견 지도자에대한 제교육등 제반대응책이 시급하다.

백20평의 경기장, 심한 비가 오면 천정이 새는 국기원은 태권도성지를 기대하며 종주국 본산지를 찾는 해외인사를 놀람과 실망에 빠뜨린다.

경기에서는 뒤돌려차기 등 어렵지만 멋있는 기술이 필요없다. 단순한 타격과 눈치만 재빠르면 승자가 될수있기 때문이다. 어면 공격형태라도 똑같은점수를 주는 현행 채점제 때문에 열거한것들을 개선키위 [illegible]

離婚한 레이건大統領의 前부인

「와이먼」은 지금 어디에-

올 67세… 北加州서 그림그리며 消日

매력넘치는 금발美女로 50년간 할리우드휩쓸어

◇젊은 시절의 레이건과 제인. 레이건과 달리 아카데미상까지 받은 여배우로서 성공한 제인은 레이건과 이혼후 한남자와 두번 결혼하고 두번이혼했으나 현재는 독신. 아깝게 퍼스트레이디자리를 놓쳐버린 여인이다.

지금 미국에서는 로널드·레이건 대통령의 이혼한 전부인 제인·와이먼(67)은 어떤 여인인가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illegible]

[illegible] 할리우드의 황금시기라고 불리던 1930년대에 배우생활을 시작, 근 50년동안 영화계를 누벼온 은막의 원로배우다.

49년에 이미 아카데미상 여우주연상을 받고 74년 영화계 일선을 떠날때 까지 그는「위대한 드라마 여배우의 한 사람」으로 영화팬들에게 기억되고 있다. 그는 매력에 넘치는 금발의 글래머로 야심 만만하며 열성으로 연기에 전념해서 스타자리에 올랐다.

제인·와이먼은 1914년 1월4일 미주리주 세인트조세프에서 태어났다. 열다섯살때 배우의 꿈을 안고 할리우드가있는 로스앤젤레스로 찾아갔다. 고등학교에 다니며 영화사마다 문을 두들겼으나 아무곳에서도 일자리가 없었다. 처음엔 좌절감을 안고 고향으로 되돌아가 대학에서 무용을 전공했다. 한때 그녀는『나는 세계에서 제일가는 댄서라고 스스로 생각한 적이 있단』고 회고하기도 했다.

대학을 마치고 제인·두럴이란 예명으로 라디오쇼에 출연하면서 이때부터 워너브라더즈 스튜디오 사람들의 눈길을 끌게 됐다. 그뒤 토니·프린즈쇼에 무용수로 일하면서 끝내 영화출연의 기회를 얻어「나의 사내 고드프리」라는 영화의 단역을 맡게 됐다.

블론드 머리를 가진 제인은 재치있는 말솜씨를 뽐내 [illegible]

[illegible]

1940년 1월27일 [illegible] 42년까지 계속 영화에 출연했으나 여전히 B급 배우로 만족해야 했다.

레이건의「政治病」으로 不協和

딸하나 낳고서 8년만에 破鏡맞아

레이건은 군에 입대해서 45년 대위로 제대하고 할리우드에 돌아왔다. [illegible]

[illegible] 【LA支社】

日本女性도 昇進막혀있다

課長되기는 하늘의 별따기

전체女性 근로자의 0.5%不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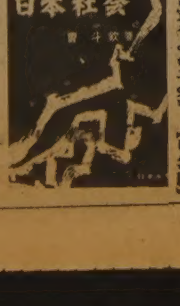
「경제대국」으로 여성의 승진길이 막혀 있음을 알수있다. 일본도 여성의 지위는 낮기만 하다. 여자가 법인이나 단체의 과장급이상으로 승진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 1백명중 2명(1.8%)도 채 안된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일본 총리부 부인문제 담당실이 전국 2천4백개의 법인(회사제외)과 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과장급이상의 여성실태조사」에서 밝혀진 것이다. [illegible]

[illegible] 1.8%이며 전체여자종업원의 0.5%에 불과한 것 [illegible] 【外信】

日서 번역出版 인기「日本 日本人 日本社會」

曹斗欽 前駐日특파원著



한국일보 前駐日特派員 曹斗欽씨(現 日刊스포츠 편집국장)가 펴낸「日本 日本人 日本社會」가 일본에서 번역, 출판 (譯者 岡田聰 讀賣신문기자)되어 절찬속에 初版이 매진됐다.

前駐日美대사였던 라이샤워씨의「더·저패니즈」와 하버드大學 교수인 보겔씨의「제팬 넘버 원」에 이어 7년동안 駐日특파원을 지낸 曹부장의「日本 日本人 日本社會」는 저널리즘에 입각, 철저히 사실에 바탕을 둔 일본 사회의 분석이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파란눈을가진 西洋사람이 일본을 분석한책은 많지만, 같은 피부색깔과 문화적배경을지닌 東洋사람이 일본사회를 조명한 책은 드물다. 이런관점에서도 많은 반응을 불러일으키고있다.

讀賣인 오까다(岡田聰)기자는이책을 번역하게된동기에 대해서『저자가 오랫동안 주일특파원을 지내면서 [illegible]

[illegible] 【東京=宋孝彬특파원】

스포츠 話題

孫基禎씨에 안준건 나치스 術策

伯林올림픽 마라톤覇者에 준 古代 그리스 투구

日本 放送기자의 取材로 드러난 45년前 수수께끼

【東京=宋孝彬특파원】孫基禎선수에게 수여키로된 고대 그리스 투구가 베를린 박물관에 전시되게된 경위를 日本의 한 방송기자가 추적,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日本문화방송 고바야시·쇼이찌(小林昭日) 기자는 문제의 코린트식 청동투구의행방을 쫓아 지난 3월27일부터 4월18일까지 베를린、아테네등지를 방문、취재를 마치고 돌아왔다。고바야시기자는 해외취재후『영광의 이 투구는 당연히 36년 베를린·올림픽 마라톤서 우승한 孫基禎선수에게 돌아가야한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말했다。또한 고바야시기자를 현지취재케한 日本문화방송은 취재 내용을 23일 하오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동안 특집보도할 예정이다。

45년전의 베를린·올림픽은 히틀러가 국위선양을 목적으로 개최、일명「나치 올림픽」으로도 불려졌다。이 올림픽의 붐을 타고 아테네의 부라디니신문사가 자기신문의 선전을위해 마라톤 우승자에게 고대 투구를 특별상품으로 제공하겠다고 보도했다。이 신문은 36년7월27일 올림픽 개막 5일前 1면에 투구사진을 싣고 마라톤 우승자에게 이것을 기증키로 했으며 이미 투구는 독일측에전달됐다고 밝혔다。올림픽을 이틀 앞두고 베를린신문도 이같은 내용을 실으면서도『과연 마라톤우승자에게 투구가 전달될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투구를 우승자에게 전달하려면 IOC의 결정이 있어야 하는데 과연 그런결정을 할수있을까 의심스럽다는 것。

마라톤이 거행된 날짜는 8월9일。그러나 그다음날인 10일、부라디니는『IOC의 결정으로 투구는 우승자에게 주지않고 영원히 베를린박물관에 보관하며 다만 투구뒷면에 우승자 이름만을 번갈아 새기기로 했다』고 보도했다。8월15일에는 일본의 호오찌(報知)신문도 베를린발 同盟通信을 받아『투구의 뒷면에 孫선수의 이름을 새기기로 했다』는 기사를 게재했다。

그러나 고바야시기자는 이번 해외취재에서 孫基禎선수에게 투구를 주지않기로한유일한 근거가 아리송하다는 것。투구를 개인(孫基禎)에게 주느냐 안주느냐는 IOC의 결정사항인데 당시 베를린신문을 다 들춰봐도 IOC가 어떻게 결정했는지가 전혀 보도돼있지 않다는 것이다。

당시 부라디니紙에 투구관계 기사를 쓴 카피초글루씨는『투구를 베를린 박물관에 보관한다는 보도자료는 독일대사관으로부터 보내왔으며 IOC가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알기위해 다시 독일대사관에 질문했더니 그런것은 알 필요가 없다고 거절당했다』고 증언했다。

그렇다면 투구를 孫基禎선수에게 주지않기로한 IOC의 결정은 과연 있었는가。이에대해 고바야시기자는 다음과같이 지적했다。IOC의 결정이라고한 당시8월10일자 부라디니보도는 뉴스소스가 독일대사관이며 8월15일자 호오찌신문 소스역시베를린발 同盟通信으로 모두독일정부의 영향력을 받은것이 아니냐는 것。

현재 남아있는 IOC총회의 보고서에는 문제의 투구에 관해서 한마디 언급이 없다。다만 베를린올림픽위원회가 제출한 공식보고서에는『부라디니신문이 마라톤우승자에게 순번으로 전네주는 상품으로 고대 그리스투구를 기증했다』고만 씌어있다。이 보고서를 작성한 독일의 카를·듀트씨는15년전에 사망、보고서작성 경위에 대해서는 확인할 길이 없다。

23일간 투구의 행방을 취재하고 돌아온 고바야시기자는『이문제는 파고들면 들수록 의문투성이다。그러나 이 투구는 孫基禎씨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신념이 더욱 굳어진다』고 결론을 지었다。

이프로를 취재한 고바야시(小林)기자는 당시 부라디니신문 스포츠기자였던 카피초글루 (KAPITSOGLU)씨、당시 IOC위원 엑스터公(EXTER)、독일올림픽위원 카스미르씨(CASMIR)등 현지관계자들과 한국측으로 당시 일장기말살사건에 관련된 東亞日報체육부 李吉用기자의부인、영업국장이었던 梁元模씨、일본측에서 당시 선수단 역원이었던 쓰루오까·에이가찌씨(鶴岡英吉)와 아사노·긴이찌씨(淺野均一)、마라톤코치 사또·히데미쓰오씨(佐藤秀三男)、선수단장 오오지마·오오카마요시씨(大島鎌吉)등을두루만나 증언을얻었고 당시 올림픽보고서및 BZ·베를린紙와 브라디니紙、호오찌(報知)신문등 관계신문의기사도 모두 갖추었다。

고바야시 기자는 이문제에 대해 서독 올림픽위원회 사무국장 월터·트뢰거씨(WALTER·TROGER)에게 코멘트를 요청했는데 트뢰거씨는『이문제의 교섭상대는 KOC와 孫基禎씨자신이다。적합한 해결방법을 찾기위해서라면 언제라도 만나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으며 그리스측의 오토·지미체크씨(OTTO·SZYMICZEK)국제올림픽아카데미 회장은『서독과 한국간의 문제이므로 별관심이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름새겨 博物館두기로했다"지만 IOC선 決定한일 없어

◇『이 투구의 임자는 孫基禎이다』베를린 박물관 전시되어있는 그리스의 국보급 코린트식청동투구。

◇孫基禎씨

西獨관계자도 "孫씨에 주어야"

本紙 읽고 '不遇한英雄'에 동정追跡

한편 현재 일본에 체재중인 당사자 孫基禎씨는『전대한체육회장인 金澤壽씨가 서독측과 교섭했으나 당시서독측은 모조품을보내 줄수있고 한국정부가 반환을 보증한다면 한국에서 진품을전시하게 할수있다는 의사를 밝힌바있었다』고말하고 문제의 투구가 당시올림픽우승자에게 수여된 특별상이었던만큼 당연히 한국으로 돌아와야 한다고말했다。

고바야시 기자가 이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게된것은 과거 한국일보에 연재된 孫씨의 나의 이력서를 읽고 부터의 영웅의 이야기에 감동한 때문이며 그후 우연히 孫씨의 장남 孫正寅씨(38·民團근무)와 알게되면서부터 미스터리를 파헤치기로 결심했다는 것이다。

고바야시 기자는 오는가을쯤 孫씨와 함께 서독에가 이문제에 대해 다시 심층취재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문제의 투구가 꼭 孫씨에게 돌아가게 되기 바란다고말했다。

太平洋、코오롱꺾고 4連霸

全國농구　海軍도 福祉園 물리쳐 우승

女子部

太平洋化學이 여자부서 4連霸를、해군이첫남자부 우승을 차지한 가운데 제10회 대통령배쟁탈 전국남녀농구대회가 20일 장충체육관에서 폐막됐다。최종일 여자결승서 太平洋化學은 朴贊淑이 크게 활약하고 權明嬉의 로우 포스트 플레이와 洪惠蘭의 플레이메이킹으로 새강 맨투맨 수비를 펼치며 악착같이 따라붙는 코오롱을 66-54로 여유있게 누르고 우승、대회사상 첫 4연패를 달성했다。

코오롱은 적극 수비를벌이다 파울이 많아 金福順·田淑동이 후반 잇달아 쫓겨나 추격의 실마리를 잡지못했다。

태평양과 코오롱은 금년시즌들어 결승서 3번 격돌했는데 태평양이 모두 이겼다。

한편 海軍과 福祉園 두라이벌사이에 벌어진 남자부결승서 海軍은 전원 리바운드에 가담하고 朴守敎·黃有夏 두 주포 이외에 李晟源의 숫까지가세 중거리숫이 부진한 복지단을 74-69로꺾고우승했다。복지단은공격옴비가이루어지지 않은데다 기대하던 陳孝準·朴仁圭의 숫이 심한 기복을 보였고 리바운드에서도 열세를 나타냈다。

새강맨투맨수비는 수비형태의 일종으로 한명의 수비자가 한명의 공격자만을 맡아 수비를하는것은 맨투맨수비형태와같으나 다른동료의 협조를얻어 맨투맨수비를 한층 강화하는 전법을 말한다。

◇최종일결승전

▲여자

태평양 66 (32-26 34-28) 54 코오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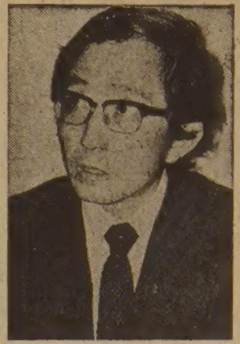
▲남자

해군 74 (38-46 36-23) 69 복지단

"強迫에서 自己解放추구"

「얼어붙는 입」作家 在日同胞 金鶴泳씨

○在日동포작가로 활약하고 있는 金鶴泳씨 (43)가 한국을 찾아 왔다。金鶴泳씨는 지난66년에 장편소설 「얼어붙는 입」을 써서 日本文壇에서 크게 화제됐던 한국인 소설가다。그의 文名은 日本 독자들 사이에서도 높아, 近作창작집 「끌」은 日本 순수소설부문에서 베스트·셀러의 列에 오르고 있다。○



◇在日동포작가 金鶴泳씨。그의 文名은 日本文壇뿐아니라 日本 일반독자사이에서도 높다。

인터뷰

한국인의 疎外·열등감 해부

제1회 「文藝賞」 수상한 문제작

최근 創作集「끌」도 베스트·셀러

그의 데뷔작이며 출세작으로 꼽히는「얼어붙는 입」은 日本「文藝」誌 제정 제1회「文藝賞」을 수상했던 문제작이다。「文藝賞」은 日本의 芥川賞과 함께 二大文學賞으로 꼽히고있다。최근의 화제작「어떤지 크리스탈」도 81년도「文藝賞」을 수상한 소설이다。

金鶴泳씨는 1912년 祖父가 고향 慶尙道 蔚山을 떠나 日本으로 건너가 정착하면서 日本에서 태어나 자랐다。그는「얼어붙는 입」을 쓸당시 日本에서 입학하기가장 어려운 東京대학工學部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工學박사학위를 준비하고있었다。

『「얼어붙는 입」은 半自敍傳的인 作品이었어요。저자신이 심한 말더듬이어서 한상 열등의식에 사로잡혔었지요。그것은 日本에서 사는한국인으로서 받는 무의식적인 強迫에서 생긴 病이라고 생각했어요。그래서 強迫에서 자기해방을 시도하는 한가지 방법으로「나」를 주인공으로 세운「얼어붙는 입」을 썼지요』

「얼어붙는 입」은 日本사회에 섞이지 못하고 가장자리로 밀려나는 고독한 한국인 청년을 주인공으로한다。이 청년은 日本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意識의 한 症勢로서 심하게 말을 더듬는 버릇을 가진다。청년은 말을더듬는 버릇을 고치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強迫意識의 후리가 잘라지지 않는 상태에서 말을 더듬는 버릇을 고치는 일은 거듭 헛수고로 그친다。

그러나 金鶴泳씨자신은 이 소설의 마지막 피리어드를찍고 난후「비로소 입이 풀리기 시작했다」고 한다。그것은 그의 意識의 바닥에 두텁게 깔려있는 感情의 찌꺼기가 告白的인 小說작업을 거치는 동안 淨化될수있었던때문으로 보고있다。

『「얼어붙는 입」이후에는 공학박사학위를 포기했어요。공업화학연구소연구원의 자리도 버렸지요。그후 소설에만 몰두해서 또다른 종류의「말더듬이」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써냈지요。日本에서 사는 한국인가운데는 內面으로 짓눌리는 듯한 소외감과 고독감을 맛보는 意識의 말더듬이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의 대표작「돌 길」(75년)、「여름의 비틀기」(75년)、「겨울의 빛」(77년)、「끌」(79년)등은 日本에서 사는 한국인의 悲劇的인 意識을소재로 한다。日本의 評壇은그의 소설에 대해「이웃나라에 와서 사는 사람들의 內面하게 겪는 悲哀感과 소외감을 鮮明하게 다루나、그 한계를 넘어서 現代人 모두의 일반적인 고독과 斷絶感까지도 선연하게 外延시키고있는 소설」이라고 평하고있다。그는 대학까지는「야마다」(山田)라는 日本姓을 썼으나、이소설을 써서 발표하면서부터는 韓國名을 다시찾아 쓰기시작했다。74년에는 日本에서 발행되는「新鋭作家叢書」全18卷안에 그의 작품이 選集 1卷으로 출간돼 나왔다。이 全集에 한국소설가의 작품이 1卷으로 나온것은 당시출판계에서는 注目될만한 일이었다。

그가 낸 창작단행본은「얼어붙는 입」「알콜램프」「굴길」「끌」등 4권이며、이 창작집에 실린 소설이 芥川賞수상 후보로 네번이나 오르기도 했다。

『日本의 소설은 아직도 私小說的인 흐름이 주류를이루고 있어요。1인칭 소설로서 身邊雜記式으로 펼쳐지는日本소설들은 강하고 진한맛은 없어도 섬세하고 담백한맛이 있지요。日本소설들은 感情의 세계를 미묘하게 묘사하며、삶에 대해 보다 美麗한 意識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金鶴泳씨는 현재 統一日報에서「포플러」라는 匿名의 칼럼을 맡고있다。64년에 한국여성과 결혼、1남 1녀를 두고있다。주소는 東京都 國分寺內 內藤 1-25-10。【吳桂淑기자】

자연파괴의 主犯「大氣오염」

英美 과학誌 기상異變 경고

탄산가스 증가로「溫室효과」촉진

「식초 비」퍼부어 水中생물 沒殺도

해마다 석탄·석유등 화석연료의 사용이 늘어남에따라 대기중에 탄산가스와 아황산가스량이 급증、현재의「농업방식」을 바꿀정도로 지상의기온이 높아지고있다고 과학자들은 말하고있다。

또한 대기중 탄산가스농도의 증가는 酸性雨를내리게함으로써 식물의 잎을 부식시키고 수중생물을 멸살할뿐아니라 건축물에까지 큰피해를 주고있다고 환경학자들은 주장하고있다。

과학자들은 따라서 이같은「기상이변」이나「환경파괴」를 막기위해 수소에너지나 태양열등 무공해에너지의 개발을 서둘러 연료로서의 석탄과 석유의 용도를 전환、다른 화학제품제조에 사용하든지 아니면 석탄·석유를계속 사용하더라도 대기오염을 줄일수있는 방법이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최근 英國의 과학전문誌 뉴 사이언티스트와 美國의 생물과학지 바이오·사이언스는 기상이변과 酸性雨의 피해를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탄산가스의 증가와 氣象이변

기상학자들은 대기중 탄산가스의 양이 늘어나면 세계의 농업방식을 바꿀 정도로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고 마침내는 南北(빈곤국과 부유국)간의 힘의 균형을 파괴할지도 모른다는데 견해를같이하고있다。

현재의 비율로 화석연료등 세계의 에너지수요가 늘어난다면 오는 2025년경에는 대기중 탄산가스의 자연농도는지금의 2배에 달하고이같은 변화가 이른바 온실효과(GREENHOUSE EFFECT)를 촉진、그때가면 지상의 평균온도가 섭씨 2~3도정도 상승될것으로 기상학자들은 보고있다。

특히 위도가 높은 지역의 온도가 상승돼 美國·유럽·蘇聯의 곡창지대는 더욱 따뜻하고 건조해질것이며 오히려 제3세계의 일부지역들이 농업에 큰혜택을 받게될것으로 보인다。

英國 이스트앵글리어대 연구팀은 지난 50년간 (1925~1974) 세계의 기온을 조사분석한 결과 핀란드에서 東經90도의 시베리아에 이르는 북쪽의 기온은 섭씨3도가 올라갔고 北美대륙은 섭씨1~2도、日本·印度·터키·스페인등은 이보다적은기온상승을 보였다。

또 평균 강우량은 印度와 中東이 늘어났는데 비해 美·유럽·蘇聯·日本은 줄어들었다。

따라서 이같은 기온상승과 건조한 조건이 겹치게될경우 세계의 주요곡물 생산지대에 나쁜 영향을줄것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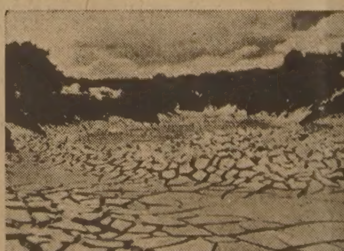
酸性雨에 의한 피해

이같은 탄산가스나 아황산가스 또는 질소산화물이 酸으로변해 酸性雨를 내리게 함으로써 현재 美國 동부와 서부의 일부호수및하천이 크게 오염되고있다。

15~16년전 北美의 일부호수에서 물고기가 떼죽음을당하기 시작하면서 발견된 호수의 산성화현상은 점점 심화되기 시작、현재는 美뉴욕주 아디론다크산맥의 2천8백개호수중 2백12개가 생물이 살지못하는 죽음의호수로 변모하기에 이르렀다。

또 아디론다크산맥의 또다른 호수 2백56개가 식초에 가까운 酸度를 보이고있어 멀지않은 장래에 생물이 살지못할 위기에 처해있으며 캐나다의 온타리오지역에서만도 이미 1백40개의 크고 작은 호수가 죽음의호수로 탈바꿈한것으로 알려져있다。

이같은 酸性雨는 대기중의 탄산가스(CO_2)아황산가스(SO_2) 이산화질소(NO_2)등이 공중의 수증기와 결합、각각 탄산·황산·질산으로 변하여 땅위에 떨어짐으로써 식물의 잎을 부식시키고 수중생물을 멸살시킬뿐아니라 건축물에까지 피해를 주고있다。



◇석탄·석유등 화석연료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기상이변 현상이 자주발생, 농업방식을 바꾸어야 할 정도까지 되었다。

美、可恐의 살인무기「레이저」發射 성공

10억분의 1초에 섭씨1억도 熱로 미사일을 揮發시킨다

科學화제

내년부터 시험配置 가능

美國은 최근 蘇聯의 공격용미사일을 우주공간에서 효과적으로 요격할수있는 레이저무기의 발사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오는82년부터 시험배치할것으로 알려졌다。

美國의 우주항공전문誌 에비에이션·위크·앤드·스페이스·테크놀러지와 英國의 더·타임즈紙는 지난2월 미공군이 蘇聯의 대륙간彈道미사일을 파괴할수있는 레이저광선시험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고 각각 보도했으며 최근 美커틀랜드 공군기지 케티·필러대변인도 美國이 이같은 레이저광선 무기실험을 하고있다는 지금까지의 보도를 확인했다。

20世紀末 우주局地戰 대처

美國이 지난2월 美네바다주 지하핵실험장에서 발사시험에 성공한 레이저무기는신형X선레이저무기로 이는 종래의 다른 화학레이저무기와는 달리 극소량의 核폭발에 의해 발산되는 순간적인 에너지로 적의 미사일을 공격목표물을 파괴할수 있는 강력한 힘을 보유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레이저무기의 실험은 최근 우주왕복선 콜럼비아호의 성공적인 발사와 함께 美國이 우주군사기지건설을 구체화하고 있음에 비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군사 전문가들은 보고있다。

美國이 이처럼 레이저무기 개발에 관심을 갖고있는것은 레이저무기가 20세기말에나 가능한 우주局地戰에 유효적절하게 사용될수 있기 때문이다。

蘇聯에레이저武器배치도

콜럼비아號의 성공적인 발사로 우주기지가 건설되고 우주상주군이 배치되면 무인우주시스템이나 우주군이 직접 우주전투기를타고다니면서 레이저무기로 적의위성을 파괴하거나 나포할수있게된다。또한 우주왕복선에 레이저 위성을싣고가 우주공간에 배치한뒤 이 위성에서 직접 레이저광선을 발사、蘇聯의 대륙간탄도탄을 유효적절하게 요격할수 있게된다(별항그림참조)。

레이저무기란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엄청난 에너지(이론상10억분의1초에섭씨1억도의 열을낸다)에서얻은 광선으로 마치 서치라이트처럼 잠깐만 목표물을 비추더라도 미사일이나 강철등을 휘발시켜버릴수있는 可恐의 살인병기이다。

이미 美航空宇宙局(NASA)에 의해 부분적으로 밝혀졌듯이 앞으로의 우주왕복선은 레이저위성을 우주공간에 띄워놓는 역할뿐아니라 레이저광선의 무기화에 핵심적요소로 간주되는 조준및추적장치실험에 이용될것으로 알려져있다。

宇宙軍이 전투기로 敵위성 파괴

20세기말의 우주局地戰 구체화

에너지90% 熱소모…효율적武器 못돼

또 지난3월 美국방성은 암호명 탈론·골드(TALON·GOLD)로 불리는 스페이스셔틀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면서『스페이스셔틀은 우주공간에서 레이저광선을 정확한 방향으로 발사할수있다』고 지적하고 스페이스셔틀계획은 레이저광선발사기술을 진전시키는데 열쇠를 쥐어야한다고 주장했었다。

해결돼야할 難題아직도많아

그러나 탄도미사일을 파괴할수있는 수단으로서의 레이저무기가 우주공간에서 효율적으로 사용되기위해서는 아직도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다고 과학자들은 주장하고있다。

지구전체를 공격목표권안에 넣기위해서는 진입궤도의 高低에따라 달라지겠지만 대체로 레이저무기가 적재된 인공위성을 지상6천~4만㎞의 고도에 3~20개는 띄워야하며 각 위성의 크기도 지금까지 발사된 우주선의 10배이상은 돼야한다는것。

그러나 레이저무기는 에너지의 90%가 열로변해 소모되기때문에 효율적인 무기는 결코 아니다。레이저광선이 미사일표면을 뚫고 들어가려면 보통 1천메가와트의 열량을 보유하고있어야 하는데 이정도의 열량을 인공위성의 자체발전소에서 생산해내는 것도 예삿일이 아니라는것。

또 敵이 自國미사일표면을 강화、처리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는것이다。

대통령배蹴球

브라질팀 4強선착

泰、印尼에 3대1

【釜山=金在契기자】20일釜山구덕운동장서 벌어진 제11회 대통령배쟁탈 국제축구대회 8일째경기에서 브라질비토리아팀은 카를로스와 프란시스코가 전후반에 각각 숫을 성공시켜 리히텐슈타인을 2-0으로꺾고 3승1무(B조)로 4강진출이 확실해졌다。泰國은인도네시아를3-1로 꺾고 2승2패를 기록했다。

한편 전날 大邱에서 벌어진 7일째 경기서 花郞은 강력한 우승후보 아르헨티나의 라싱·데 코르도바와 열전끝에 1-1로 비겼다。

이로써 2승2무승부를 기록한 花郞은 日本과의 대전(21일·釜山)에서 2골차이상으로 패하지않는한 결승에 진출케 됐다。

花郞은 전반40분 洪性號의 핸들링반칙으로 페널티킥을 허용、1점을 선취당했으나 예상을 뒤엎는 우세한 공세를 편끝에 후반29분 丁海遠의 도움을받은 邊炳柱가 땅볼 숫으로 동점골을 올렸다。

◇제8일전적

▲B조4차전

브라질 2 (1-0 1-0) 0 리히텐슈타인
(3승1무)　(1무3패)

태국 3 (2-1 1-0) 1 인도네시아
(2승2패)　(4패)

◇제7일전적

한국 1 (0-1 1-0) 1 아르헨티나
(2승2무)　(3승1무)

일본 2 (1-0 1-0) 0 말레이지아
(2승2패)　(1승3패)

아시아밴텀級 타이틀 爭取

프로拳法 高明安 6회KO승

프로拳法 아시아 밴텀급2위인 한국의 高明安은 19일밤 장충체육관서열린 챔피언 日本의 가쓰마다·아쓰오(勝又厚男)와의 타이틀 매치서 6회1분45초만에 KO승을 거두고 타이틀을 획득했다。

한편 아시아 페더급챔피언 한국의 李鍾國은 도전자日本의 아오야마·다까히로(靑山隆浩)를 5회2분15초에 KO로 누르고 타이틀을 방어했다。

내년 少年體典 大田서

대한체육회는 19일 체전위원회를 열고 82년제11회 소년체전을 大田에서열기로 확정하는 한편 83년 제12회소년체전은 濟州에서 열기로 잠정결정 했다。

체전위원회는 이날 79년 전국체전개최도인 忠南이 소년체전 개최를 신청해옴에 따라 만장일치로 이를 결정하고 濟州도의 83년 소년체전개최를 가승인했다。

체전위원회는 또 오는 10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62회 전국체전부터 입장식에만 참가해오던 이북5도에대해 이들 5도만의 축구대회를 신설토록했으며 각 대학분교에 소속되어있는 선수들은모두 본교가 소재하고 있는 시도소속으로 출전하도록 규정했다。

女性 소식

金敬愛 옷본특강

金敬愛옷본사는 24~25일 경기양재학원에서 옷본을 이용한 원피스、블라우스、가운만들기 특강을 갖는다。전화 ⑦1041。

유아원보넬 동화책 새마을 부녀회수집

새마을부녀회 중앙연합회는 전국의 새마을유아원에 교육기구보내기 운동을 펼치고있다。수집품목은 장난감、동화책、그림책등이며 30일까지 새마을부녀회 각시·도 연합회로 보내면된다。중앙연합회

自願奉仕者 모집 Y市民중계실

YMCA시민중계실은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대상은 대학졸업의 남녀。여름한일을겪는 서민들을돕는 법률、소비자보호、근로자권익옹호 작업을 하게된다。(☎3181)

柳元淑씨 聖畵展

여류화가 柳元淑씨의 聖畵전시회가 24일까지 同德화랑에서 열린다。

柳씨는 漢陽大 응용미술과 출신으로 72년渡美、미국에서 회화를 수업했으며 현재 厚岩미술학원강사로 재직중。柳씨의 이번전시회는 聖畵를 주제로한 시리즈。

아동삽화가 「무지개모임」조직 18명

국내아동물 삽화가18명은 최근「무지개모임」이라는친목단체를 조직하고 국제교류전、정기스케치회、삽화공모전등 회원의 자질향상과 친목도모를위해 노력하기로 다짐했다。

이모임은 鄭禿龍、김영주、전선보、이우경씨등 6명을 고문으로、이우범、박동일씨등12명이회원으로발족했다。

十字春秋

海外여행 自由化

金哲洙 <서울大 法大교수>

政府는 16일 海外旅行·海外就業·海外移住·留學등 지금까지 규제적이고 폐쇄적이던 정책을대폭 전환、국민에게 海外로 뻗어나가는 門戶를과감히 개방하는 海外進出확대방안을 확정 발표하였다한다。더구나 이같은 해외진출 개방정책은 全斗煥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따른것이라한다。

이번의 이결정이야말로 새時代 새분위기를 우리국민의 눈앞에 뚜렷이 보여주는 劃期的인 정책의 하나라고 말할수있다。

이제와서 종래의 閉鎖主義이고 소극적이던 海外進出政策을 생각하면 참으로 답답한것이었다。그것은 한마디로 국민의 海外進出을 최대한 억제하여보자는 정책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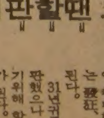
그 理由로는 달러의 流出을 막아보겠다는것과 방공정책의 일환등을 들수 있었는데、이것은 결과적으로 국민의 숨통을 막는 鎖國政策이었던것이다。그리하여 우리국민은 海外에 나간다는것은 하늘의 별따기와 같고 幸運이라고 느낄정도로 위축되고 초라한 모습들이었다。그 얼마나 가엾은 이야기냐。

自由에는 行動의 自由가 으뜸가는 것이다。그것은 國內에서의 行動의 自由만이아니고 國外로 가는 自由까지 포함한다。그러하거늘 우리국민은 [illegible]되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國外로가는 自由는 숨을 죽이고 살아왔던 것이라고 말할수있다。

그런고로 이제까지 30여년간 막혀있던 自由에의 숨구멍이 이제야 비로소 터져서 우리국민이 하늘로 높고 자유로운 呼吸을 하게되었다고 하여도 過言이 아니다。따라서 이번 海外旅行의대폭 자유화에 관한 정책은 全대통령의 果敢한勇斷이라 칭찬하지않을수 없다。다만 이러한 勇斷이 그뜻에따라 취지대로 실현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그것은 이러한 슬기로운 政策이그 실현과정에서 실무자들의 複雜한細則에 의하여 生命을 잃는수가 많기때문이다。老婆心으로 한마디 붙여두는 바이다。

文家의 名言

피츠제럴드
<1896~1940>



미국의 小說家。프린스턴대학재학때부터 文學에 뜻을 뒀다。1919년 除隊、앞서쓴장편소설을 改稿、「樂園의 이쪽」을 출판、「잃어버린世代」로 최초의 人氣作家로 등장했다。

"비판할땐 그의 條件 생각해야"

장편 소설「樂園의 이쪽」으로 문단에 등장한 피츠제럴드(F Scott Fitzgerald)는 2년전부터 약혼해있던 젤다와 결혼、그후 단편집「말괄량이와 哲學者」、장편「아름다운것과 저주받은것」、단편집「재즈時代의 이야기」등을출판、유행작가로、시대의 총아가됐다。

그러나 유럽에 건너가、「잃어버린世代」로 불리면서 헤밍웨이등과 사귀어、「偉大한 개츠비」등을 내놓았는데、浪費와 음주에젖어 생활이 황폐해졌다。거기다 처인 젤다는 發狂、그의 비극적생활이 시작된다。

31년귀국、「밤은 상냥해」를 출판했으나 不評으로 끝나、빚을 갚기위해 할리우드서 시나리오 작가가 된다。

紅蔘의 「癌增殖억제력」확인

2000年 未知의 新世界 — 앞서가는 사람들

天然抗癌劑연구 — 尹鐸求 박사팀

<한국에너지연구소 암병리학연구실장>

20세기 인류 최대의 難題— 癌정복을 위한 노력은 세계적이다。 매해 암으로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세계를 통틀어 6백여만명에 이르며 우리나라 에서만도 4만여명을 헤아리고있다。

세계가 암을정복하기위해 수술및방사선요법을발전시키는 일과함께 암약을찾는데 온힘을 기울여 왔어요。 그러나 암을 약으로 정복해보려는 노력은 이제 벽에 부딪친 느낌

한국에너지연구소 암병리학연구실장겸 부설 원자력병원장 尹鐸求박사(49)팀은 이같은 암연구분야에 앞서가는 사람들이다。 尹박사가 암과 인연을 맺기는 59년。 57년 서울의대를 나와 남들이 가기 꺼리는 기초의학 분야로 방향을 돌려 동대학원에서 病理學을 전공하며 남달리 암연구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尹박사는 그해 「한국인의 악성종양(암)에 관한 연구」논문을 내 놓았다。 그러나 尹박사가 본격적으로 암연구에 몰두하기 시작한것은 64년 原子力病院 放射線醫學연구소(현 한국에너지연구소 부설 원자력병원) 연구관이 되면서부터다。

尹박사는 그후 原子力病院 방사선의학연구소 병리학연구실장, 서울대의대 병리학교실 임상조교수, 수도의대(현 高大의대) 병리학교실 임상부교수, 美國립보건연구원 국립암연구소 병리연구실 초빙연구원, 原子力病院 방사선의학연구소 병리학연구실장, 한국원자력연구소 원자력병원 연구부장겸 암병리학 연구실장등을 역임하며 22년을 암연구에 몰두해 왔다。 尹박사는 처음 암의원인, 특히 發癌물질과 抗癌劑연구에 힘을 기울여 왔으나 최근엔 抗發癌劑를 찾는데 심혈을 쏟고 있다。 尹박사팀이 그동안 내놓은 암관계 주요 연구논문은 抗癌리보核酸분해 酵素등 17편에 이른다。 『60년대만 해도

입니다」

항암제는 본시 혈액암등 전신암과 종기내지 말기의 轉移된 암환자를 치료해보기위해 개발이 서둘러졌다。 그러나 항암제는 암세포와 함께 정상세포, 특히 세포증식력이 강한 골수세포와 장간세포등을 크게 해친다。 尹박사는 항암제는 이같은 독성때문에 일정한 한계를 넘을수없다고 설명한다。 70년대초 화학요법, 즉 항암제 투여에 병용해서 면역요법이주목을 끌었으나 한때 반짝했을뿐 역시 큰성과를 얻지못하고있다。 尹박사팀이 抗發癌劑에 관심갖게된것은 이때문이란것。

『70년대초부터 인간의 암85%정도가 환경이 만든다는 疫學조사 결과로해서 암을예방해보려는 노력이 세계적으로 일게 되었지요。 그러나여기에도 넘지못할 큰장벽이있다는것을 알게되었어요。 현재 지구상에 있는 화학물질은 대략 4백만종으로 보아요。 이중 우리생활과 밀접한관계를 맺고 있는것은 대략 6만종。 그런데 현재 이중가운데 무려 1천5백여종이 암을 일으킬수있고 발암물질로 확인되어 있어요」

화학물질 1종에대해 발암성을확인하려면 적어도 3년의 기간과 10만달러(약7천만원)의 돈이 든다。 따라서 현재 우리의생활과 밀접한관계를맺고있으면서 아직 조사되지않은 화학물질에 대해서만 발암성을 집중적으로 확인해야한다 해도 앞으로 수백년은 걸려야 한다。 발암물질이 확인되면 물론 이들을 우리 생활 언저리에서 몰아내야한다。 그러나 실제로 이같은일이 이루어지지 않고있다。 담배속에서 강력한 발암성물질이 확인된지가 이미 오래이나 흡연인구는 좀처럼 줄지않고 있다。 그런가하면 거의 모든 식품속에 들어있는 2급 아민과 [illegible] 체내에서 N·니트로조라고 하는 발암성 화학물질을 만들고있다。

따라서 발암물질을 찾아내 이들을 우리생활 주위에서 철저히 몰아내 암을 예방한다고 하는 일은 실현이 불가능한데다 소극적인 방법에 그칠수 밖에 없다。

尹박사는 발암물질은 어차피 우리 몸속으로 몰려오게 마련이라며 따라서 문제는 몸속에 들어온 이들 발암물질을 중화, 암을 일으키지 못하도록하는데 초점이 모아진다고 설명한다。

『세상에 항발암제, 즉 암 예방작용이 있는 물질이 있다면 이들은 우리가 조상 대대로부터 먹어온 식품속의 어떤 천연성분일것으로 예견됩니다。 합성물질 가운데 암 예방 효과를 갖는것이 전연 없다고 단언할수 없으나 설혹 있다해도 합성물질은 늘 부작용의 위험을 안고있게마련입니다」

尹박사는 이같은 가정아래 78년부터 천연의 항발암제연구를 착수하게 된것이라 설명한다。 현재 尹박사팀은 국내의 생약과 한약재 1백종을 선별, 이들의 추출물을 쥐에서 항발암효과를 실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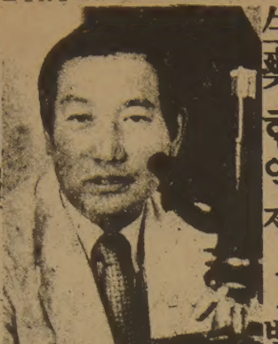
尹박사팀이 현재까지 확인해본 천연물은 이중 15종。 그중 지난해 실험한 홍삼 실험은 좋은 결과를 얻어냈다。

尹박사팀은 실험쥐에 DMBA(다환성탄화수소의 일종)를 비롯 AAF、아플라톡신B1、유레탄、담배추출물、니트로조화합물(MNNG)등의 발암물질을 단독 또는 홍삼과 함께 투여해 보았다。 그결과 홍삼성분이 직접적으로 암세포를 공격하지는 않으나 암세포의 증식을 뚜렷하게 줄인다는 사실을 확인하기에 이르렀다는것。

예를들어 DMBA로 실험쥐에 肺腺腫을 일으켜 보면 단독 투여때 보다 홍삼을 함께 투여할때 肺腺腫의 크기를 23%~63%까지 감소 시켰다는것。 다시말해서 홍삼은 암발생빈도와 증식력을 뚜렷이 줄인 것이다。

따라서 尹박사팀은 이를바탕으로 올해 홍삼의 생체저항력및 비특이성면역과의 관계와 홍삼이 放射線照射에 비치는 영향등을 알아보는연구를 진행중이다。 【李光植기자】

人體內 발암물질 中和에 초점 — 生藥·한약제 1백種추출물實驗



抗癌물질찾기에 여념이없는 尹鐸求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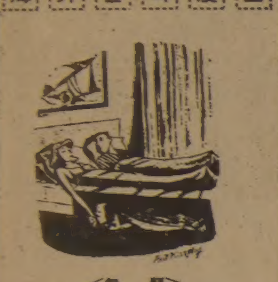
비타민A 類似물질 探究 — 脂溶性… 過用땐 해로와

〈抗發癌물질〉 암을 일으키는 물질을 發癌물질이라한다。 팥팥이 가 많은 아플라톡신을 비롯 풋고기 속의 芳香族炭化水素인 3、4벤즈피렌、PVC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노비닐클로라이드등 인공감미료인 사이클라메이트등 현재 알려진 발암물질은 자그마치 1천 5백종에 이른다。 抗發癌물질이란 이들 발암물질이 몸속에 들어 왔을때 독성을 중화해서 암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는 물질。 현재 비타민 A가 항발암성이 있다고 알려져있으나 비타민A는 脂溶性이어서 과용할경우 몸에 축적, 도리어 나쁜영향을 준다。 그래서 비타민 A유사물질을 찾고있는중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발견된 비타민A 유사물질은 肝과 같은 장기에 큰 독작용이 있다는것이 밝혀져있다。 따라서 천연물질 가운데 이같은 항발암성물질을 찾는 연구가 세계적으로 진행중이다。

블론디 — 딘·영 作

"이봐 대그우드, 자네를 경영담당 제2부사장으로 승진시키겠네"
"경영담당 제1부사장은 누굽니까?"
"공석이야"
"자네를 그자리에 앉히는것보다는 공석이나을걸로 생각한거야!"

海外걸작漫畵



<無 題>

<생태학>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
2890 LAKESHORE BLVD. W.
(B) 252-4857
(R) 252-6602
유 원 덕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정력감퇴,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530-0522(B)
531-4165(R)
조 지 섭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THE KOREA TIMES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렛
619 Bloor St. W.
☎: 535-3520. 630-8491

구 인

지렁이잡이 원함(유경험자):
헌처와 웨스톤지역, 최고가격
☎: 243-7736 미스터 리

경험있는 지렁이 잡으실분: 대우좋음
MR. JIM OR NICK 1000마리당 $19~$25
☎: 531-0474

유경험자 지렁이잡이구함 PETER KOTSISAS
LIVE BAIT 좋은 농장, 승용차로 지렁이 잡으실분
구합니다. 좋은 대우 ☎: 533-0910 피터

스토아 매니저 구함
$15,000. 보증금 요함. 수입 $3,000 개런티
☎: 635-9585

한 국 관
웨이트레스 1명, 웨이터 1명
☎: 536-0290

경험있는 여자 캐쉬어 구함
풀, 파트타임
☎: 742-0800 미스타 차

딸이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므로 딸내 가사와
아기 돌보아 주실분 구함
☎: 231-4905, 368-5425(B), 236-1253(딸)

경험있는 재봉사 구함: 일할 수 있는 좋은 조건과 지불,
우수한 이익, 600 SPEEDROCK DR. DOWNSVIEW
☎: 630-7777 LOUIS

쥬스 & 샐러드 바에서 헬퍼구함
☎: 368-9206(오후2시이후)
438-0403(집)

스토아 여자 캐쉬어 구함
(토, 일요일, 12~8시까지)
☎: 921-0624

어린애 셋(10, 9, 8살) 돌보실 분
월~금까지, 교육에 이해 있으신분, 월 $300~$400
추천서 필요.
CALL: 오후6시~9시30분
☎: 742-4776

재봉사 구함 (남·여)
• 약간명 • 유경험자 • 좋은 대우
• 핸드백 만드는일
인터뷰 원하시는 분은
CALL 251-2543 AVIS

재봉사 구함(LADIES' SPORTSWEAR)
번봉, 오바로꾸, 단, 풀타임, 파타임 or, PIECE WORK
292 PARLIAMENT ST. AT DUNDAS ☎: 362-2300

입주하시거나 출퇴근하셔서 애기 돌보아 주실분
오후6시 이후 연락
☎: 535-4441

매매및 양도

가게매매: 주매상 $4200, 좋은렌트 좋은 리스
☎: 1-579-4451

가게매매: 직접내방원함
그로서리 겸한 버라이어티,
1385 WESTON RD. (제인×웨스턴)

몬트리올 영어지역 스토아 매매:
주매상 $6000~6300개런티, Asking $60000+스탁,
Cash $55000이상, 맥주와 와인 취급하며 배달 없음.
주위에 새로운 빌딩 건설중임
☎: 1-514-486-0944

프렌차이즈 벡커스토아 매매:
1169 WOODBINE AVE.
☎: 423-7939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도
브렌 NEW STORE PLAZA안 에 위치
주매상 $5500+ 로타리오
TICKET SALE(월 $15000)
관심있으신분 직접 내방하시기 바랍니다.
855 JANE ST. TOR. ONT.

부부가 경영할 수 있는 작은
케네디언 레스트랑 급매: 이익좋음
☎: 251-1908(오후2시~7시)

버라이어티 스토아 팝니다:
주매상 $2800, 렌트 $340, 리스5년, 2층에 2베드룸: $275
☎: 635-1038

스토아 매매: OPEN WINDOW BAKERY및 그로서리가게
이주관계로 매매, 직접내방 상담요망
1550 BLOOR ST.

성업중인 햄버거 샾 급매
다운다운지역
☎: 535-2804

바라이어티 스토어 급매
가장 적당한 Offer를 주시는 분에게 팔고자 함.
☎: 465-4003

스토아 매매: 주$4000, 가격 $23000+스탁
120 LAKESHORE RD. E.
HWY 10 & LAKESHORE RD.

맥스밀크 양도: 년매상 34만불 상하,
상하, 년순이익 4만불 상하,
재고 2만5천불 상하, 권리금3만5천불,
리스8월10일 1984, 옵션10년
600 The East Mall Rd. (East Mall Rd. at Rathburn Rd.)
☎: 622-6155, 762-1264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주매상 $5000 (Brimortone×Orton Park Dr.)
956 BRIMORTONE DR. SCARB.

버라이어티스토아 매매: 해밀톤지역
VOLUME 30만불(1년)
☎: 528-0818 CALL ANNA OR TONY

버라이어티 스토아 SET UP사실분
렌트 $350, 리스6년+6년 옵션
☎: 465-6247 JACK PONG

픽업 세탁소 SET UP하실 분에게 필요한 모든
장비를 아주 싼 값에 팝니다.
☎: 487-5000

밀크스토아 급매:
☎: 277-3745

가정사정으로 인하여 SET UP중인 가게를
급매코자 합니다.
☎: 968-9221

밀크스토아 매매
4630 KINGSTON RD.
☎: 282-7596

DONNA LIA FRUIT: 성업중인 가게를 매매합니다.
주매상 $6000.
☎: 654-7240 1362 ST. CLAIR W.

그로서리 스토아및 빌딩 팝니다: 이층 벽돌 건물이며
장래성이 많고 TUCK SHOP보다 더 좋은 위치에 있음.
☎: 781-7080 458 CALEDONIA RD.

그로서리 가게 매매(경쟁없음)
주매상 $4500이상, 리스5년+옵션5년, 렌트 월 $995
(윗층 살림집5개룸 포함)
ASKING $42000
9 KINTYRE AVE. TORONTO, ONT.

VISA master charge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 751-9236, 757-2106 홍 진 표

꽃 집

〈제인·파크 꽃집〉
*각종 꽃종류, 조화, Plants취급. *꽃꽂이, 생일, 결혼, 장례꽃 전문. *어디든지 배달가능합니다.
☎: 769-0609 여 정 웅

꽃 집 크로스웨이(구 클레어리)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05 남파·김

다우스 꽃집(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 751-5851 이 동 환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① 모든 축하 꽃꽂이와 결혼, 장례꽃 전문
②바구니 종류와 꽃에 관한 모든 물품구비
☎: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미 용

킴스미용실
(B) 532-7094, (R) 248-2437 (코리아하우스 뒤)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컷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크리스티미용실 (크리스티 서브웨이 건너편)
남녀 노소 커트, 셋트, 파마 전문
727 Bloor St. W. (B) 533-2569, (R) 967-1518 미세스 박

시설및 수리

TV출장 수리
☎: 431-0102 MR. 박

L. N. ELECTRIC MOTORS LTD.
각종 전기 모터 수리및 신 중고품판매(40여년의 연륜)
☎: (B) 661-5667, (R) 742-9450 MR. 김

자동차, 집유리 설치, Repair합니다.
보험청구등 자동차 실내장치도 합니다.
MOON'S AUTO TRIM & GLASS LTD.
☎: 633-0656(B), 493-7185(R)
정 해 운(휜치×킬)

카펫·카텐

카펫 크리닝 •카펫 •소파 •체어 •타일 •하드우드
439-6277 박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스트리핑 & 왁스)

한 방 원

침 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매일10AM~8PM ☎: 922-7090
700 Ontario St. #517 (St. Jamestown) 박영숙

인 쇄

TOP PRINTING CO. LTD.
각종인쇄 염가봉사, 최신의 장비및 기술
96 REXDALE BLVD. ☎: 746-0675 박 종 남

이삿짐및 운송

각종운반및 이삿짐 나라운수
피아노, 쿨러 ☎: 630-6602

인벤토리

INVENTORY
①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②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③ STORE 납세대비 INVENTORY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B) 259-5822, 255-8301 (R) 252-2963 MR. 오

악기점

피아노 조율및 손질
이동훈(서울음대 졸)
☎: 781-0200

SOO, PIANO SERVICE 222-4662
SIMSON'S의 써비스를 독점 대행하고 있는 회사. 조율
액숀조정, 건반, 캐비넷칠, 중고매매. 김 수 용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팝니다
PIANO, TECHNICIAN
☎: R) 636-1430, B) 783-6871
1547 EGLINTON AVE. W. 이 상 철

에어콘·히팅·냉장고

각종냉장고 (가정용및 상업용)
ELECTRIC STOVE수리전문
☎: 466-4304, 469-3341 박 기 황

냉장고, 냉동기, 에어콘
(시설및 수리)
☎: 221-5441 센츄리 냉동(원홍성·이인식)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판매·수리
•정확한 진단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Hour Service.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자동차수리

자동차 수리 일체:
20 ROGERS RD.
☎: 651-9324(B), 226-5430(R) 변 할 원

인벤토리

INVENTORY
①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②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③ STORE 납세대비 INVENTORY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B) 259-5822, 255-8301 (R) 252-2963 MR. 오

기 타

BEAR PAWS, GOAL BLADDERS
웅담 팝니다. ☎: 463-3572
오전10시~오후7시(월~금)

사람을 찾음:
천두섭 딸 천혜경 찾음 76년 왔음. 서울 을지로 5가
창림사 이태희 씨 애들 ☎: 1-206-329-5903

여행사관광 코스(학교)가르칩니다.
7월과 9월에 코스가 시작되며, 낮반과 저녁반이
있읍니다. 관심 있으신분은 363-3286으로
전화하십시요.
바트리 INSTITUTE OF TRAVEL
MR. ZONENBERG

집안에서 손으로 하는 크로켓이나
뜨게질하는데 경험있으신분 찾고있읍니다
샘플을 보고 그대로 만들수 있는 분
원합니다.
관심있으신분 FRAN에게 연락바랍니다
☎: 884-6264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한국일보 토론토지사 일간발행 기념

교포위문대공연!!

●최고의 인기 정상가수 총출연 ●최고의 가수진 ●최고의 캄보밴드 ●최고의 코메디안

◎일 시 : 1981년 7월3일(금) 7시30분

◎장 소 : CENTRAL TECHNICAL SCHOOL
(BATHURST & HARBORD)

◎입장권 : $12.00, $10.00

〈입장권 예매처〉

●본 사 ●한 국 관 ●고려식품 ●단풍식품 ●동양식품
●삼복식품 ●서울식품 ●한국식품(동부, 서부, 본점)

주최 : 한국일보사